

제2394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윤석현식 감독' 반기 든 은행들 9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 17

## 전문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

한은 28일 금통위 열어 금리 결정  
19명 중 11명 “이달”...6명 “7월”  
수정경제전망 대폭 하향 예상

채권전문가 대부분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봤다. 다만, 수정경제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상황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물량 확정 사이에서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 관측이다. 올해 성장률이 0% 가까이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좀 더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금리 결정 외에 한은의 국채 매입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매입량을 늘릴지, 선진국과 같이 매입 규모를 확정하고 정례화하는 방식을 공식화할지 등에 주목했다.

2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명은 한은이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6명은 7월 인하를 점쳤다. 5월은 물론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다.

5월 인하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와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꼽았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경제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것 같다.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정책 공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3명의 신입 금통위원이 첫 금리 결정을 내린다는 점, 최근 코로나19 충격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7월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환경

을 보면 추가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3명의 금통위원이 새로 오고 곧바로 인하는 부담일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도 3차 추경과 이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물량에 따른 부담이 작용할 때 통화와 재정정책 간 풀리시믹스(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채 매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에도 주목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국채 매입량과 매입시기에 대한 어나운스(안내·announce)를 명확히 할 것 같다. 포워드가이던스도 한국식으로 만들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한은은 28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3월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0.75%로 결정한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동료 직원 편견·차별에...속으로 운다”

## 140만 성소수자의 ‘불안한 삶’

스페셜 리포트

OECD 조사 결과 국내 2.7% 추정  
86%는 직장서 정체성 감추고 생활  
성평등은커녕 사내복지 혜택도 못 누려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Q씨는 레즈비언이다. 입사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직장 동료에게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한 적이 없다. 동료들이 평소 성 소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는 상황이 더 심해졌다. 동료들은 점심을 먹다가도 “게이들이 다 망쳐놨다”, “동성애자들이 너무 싫다”는 말을 갑자기 내뱉곤 한다.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Q씨는 “회사 동료들은 성 소수자라는 존재 자체를 낯설어해요. 커밍아웃하면 동료들의 입방아에 오를 거고, 누군가는 대놓고 혐오 발언을 할 거예요. 커밍아웃은 ‘굶어 부스럼’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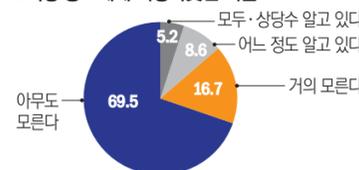
커밍아웃을 단념한 Q씨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무엇보다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놨다.

“직장 동료와는 일 얘기만 하진 않잖아요. 사적인 대화를 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건데, 흔한 대화 주제로 오르는 결혼, 출산, 육아, 연애 이야기에 끼지 못해요.”

Q씨는 사귀는 동성 짝꿍이 있다. 입사 후 직장 상사에게 “남자친구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있다”고 답한 뒤 곤욕을 치렀다. 회사 사람들은 그 남자친구가 몇 살인지, 근대는 다녀왔는지 등을 물었다. ‘여성’ 파트너를 ‘남성’으로 바꿔 말하러다 보니 직업과 나이 등을 꾸며야 했다. 어느 순간 짝꿍은 가상의 인물이 돼버렸다. 그 뒤로는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직장 내 성 소수자 관련 통계 (단위: %)

■ 직장 동료에게 커밍아웃한 비율



■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경험 여부  
경험 있음 ..... 44.8

■ 직장 내 성 소수자 지원책 여부  
성 소수자를 위한 제도·인식 개선교육  
우호적 캠페인이 있다 ..... 3.7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15년 기준)

기본적인 사내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얼마 전 짝꿍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어 연차를 내야 했지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법적인 혼인 관계에만 주어지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Q씨는 “어떤 형태로든 결혼하겠지만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가족수당이나 의료비 할인 등의 복지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성 소수자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2.7%로 추정된다. 5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중 140만 명이 성 소수자일 수 있는데, 직장 내에서는 왜 쉽게 찾을 수 없을까. 그만큼 우리의 일터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성 소수자 86%가 Q씨처럼 직장서 정체성을 감춘 채 살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코로나19 등 여러 계기로 물밑에 있던 성 소수자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정작 일터에서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와 논의가 더디다.

재계 관계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아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SK 공채시험 ‘방역 총력’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기업 채용이 다시 시작했다. SK그룹은 24일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종합역량검사(SKCT)를 서울 성북구 서경대와 광진구 세종대 등에서 실시했다. 고사장은 2m 거리를 두고 좌석이 배치됐으며, 응시자는 발열검사를 받은 후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시험을 치렀다. 방역복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서경대에서 응시생들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신태현 기자 holjjak@

## 檢 ‘담합 자진신고’ 기업·임직원 불기소

처벌 감면 ‘형사 리니언시’ 시행  
강제수사 자제로 기업부담 줄 듯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역할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간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

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찰은 담합 사건 수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로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 등 면책하고 2순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자수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중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인멸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리니언시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해 검찰의 적극적 형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수사를 자제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에 형법상 자수자 감면제도와 공익

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를 넓게 해석해 적용했다.

다만 ‘형사 리니언시’가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18년 법무부와 공정위가 합의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에 ‘형의 감면’에 대한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 적용을 위한 수사 착수와 정보 입수 주체에 ‘검찰’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가 주도권을 쥐고 운용 중이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형사고발(전속고발권)을 하지 않는 형태로 활용해 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국민 1인당 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작년 세금·연금·보험료 등 1014만원  
국민부담률 27.4%로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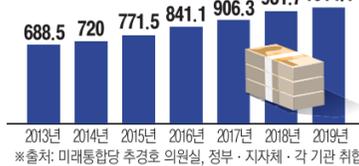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이었다.

우선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 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 원, 지방세는 91조3000억 원이다. 여기에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 원이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 추이(단위: 만 원)

\*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 국민부담액을 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



\* 출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 정부·지자체·각 기관 취합

국민부담액은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 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경총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과감한 규제 혁신”

## 경제전문가 222인 설문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경기 반등을 위해선 21대 국회가 산업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벌인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신산업규제 완화(73.4%·복수 응답 가능)’를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복지확대·사회안전망 강화(33.8%)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44.6%)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응답은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

유연근무 완화·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편 시급한 입법과제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

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입법과제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했다. 그 외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19.8%)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41%)’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 응답으로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 등이 있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라는 응답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총은 ‘우리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해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라는 응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보다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서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2년(41.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 응답은 ‘6개월~1년’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능하기 어렵다(장기침체)’ 18.5%, ‘6개월 미만’ 10.4%로 나타났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美서 부활한 자가용 문화... 위기의 공유경제

졸업식·영화관 등 비대면 확산  
車, 공유서 소유로 트렌드 전환  
우버·리프트, 구조조정 '칼바람'

미국 전역에서 경제활동의 점진적 재개가 시작된 가운데 눈에 띄는 현상이 바로 자가용 문화의 부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기 쉬운 자가용이 경제활동 재개의 핵심축으로 떠오른 것이다.

경제 재개 과도기에 나타난 이런 새로운 생활양식이 미래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공유경제의 쇠퇴로 핵심 사업모델에 결정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우버는 이달 들어 전체 인력의 25%에 달하는 약 6700명을 감원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이동 제한 명령 여파로 지난달 미국에서 우버 차량공유 이용횟수는 전년 동월 대비 80% 급감했다. 리프트도 전체 직원의 17%에 해당하는 약 1000명을 해고하는 등 공유경제에 감염 칼바람이 불고 있다.

공유경제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부문은 ‘소유에서 이용’이라는 추세가 다시 소

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 우버, 리프트 등을 둘러싼 불안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전까지 출퇴근길에 전철이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온 샌프란시스코 주민은 닷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가 해제되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레스토랑이나 졸업식장, 영화관 등 곳곳에서 ‘드라이브 인’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해안에 8개 식당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 멜스(Mel's)는 테이크 아웃 판매로만 코로나19 파고를 견디고 있다. 이 업체는 이달 주차장에 세워둔 고객 차량 차창에 간이 테이블을 부

착,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오믈렛이나 햄버거를 서빙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로 1950년대 유행했던 ‘카홉(Carhop)’ 문화의 부활이라고 닷케이이는 설명했다.

미국 50개 주 전체가 이달 경제 재개를 본격화했지만 제2의 감염 확산을 일으키지 않게 단계를 밟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위 사례처럼 ‘소셜 디스턴스(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가용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임을 제한하지만 ‘자동차 집회’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5월은 졸업 시즌이 한창인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차 안에서 졸업장을 받는 ‘드라이브 스루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아직도 휴업 상태인 곳이 많지만 차 안이라면 안

전하다는 인식 속에 미국 전역의 약 330개 드라이브 인 극장은 영업을 재개했다. 뉴욕 양키스타디움도 7월부터 주차장을 영화 상영이나 콘서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여행협회와 리서치 업체 MMGY트래블인텔리전스가 이달 초 1200명 미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6개월간 비행기를 통한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사람은 약 20%에 그쳤지만, 자가용으로 국내여행에 나서겠다는 응답은 70%에 육박했다.

여전히 백신 개발에 걸리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아예 안심하기 전까지의 과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러 영역에서 퍼지는 마이카 중심의 생활양식을 축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닷케이이는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능력소핑**

실력 300% UP ▲  
개발 200% UP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美·中 '신냉전' 격화 속... 삼성·LG, 해외공장 잇단 재개

韓·中 '신속통로' 합의 20일 만에 기업인 1000명 중국행  
삼성 印 스마트폰 공장 재가동... 총수들도 현장경영 나서  
업계, G2 '홍콩보안법' 갈등에 소비·투자 위축 우려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주춤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사실상 멈춰있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기지에 기술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총수들은 다시 현장경영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화웨이 고강도 규제에 이어 홍콩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동을 중지했던 해외 공장들을 일제히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자리 잡은 스마트폰 공장을 7일부터, 첸나이 가전 공장은 14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LG전자 역시 푸네 가전공장을 18일부터, 노이다 가전 공장을 22일부터 재가동했다. 삼성과 LG의 글로벌 최대 시장 중의 하나인 미국과 유럽 등의 공장은 각국의 이동제한 명령이 완화되면서 지난달 말부터 먼저 가동을 재개했다.

주요 기업들의 해외인력 파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해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 제도 시행 20여일 만에 인력 1000여 명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신속통로 제도는 현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1일 시행됐다.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은 3일 인력

240여 명을 같은 전세계에 태워 중국 장쑤성 난징으로 보냈다. 이달 10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의 3개 전자 계열사 및 협력사 직원 215명이 텐진으로 출국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달 20일에도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해 광주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에 170여 명을 보냈다.

21일에는 SK이노베이션도 장쑤성 연청 신규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 120여 명의 기술진을 급파했다. 22일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인력 300여 명이 중국 시안 땅을 밟았다. 이들은 공장 증설과 라인 랩업(생산량 증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 총수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이달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다녀왔다. 이 부회장의 중국 방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기업인 최초로. 이 부회장은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헬기를 타고 충남 서산시 LG화학 대산공장을 방문해 LG화학의 잇따른 국내외 사고에 대해 그룹 총수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LG전자는 사업 효율화를 위해 구미사업장의 TV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고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미뤄왔던 투자를 집행하고, 사

## 산업계 재도약 움직임

### 공장 가동 재개

5월 7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5월 14일		인도 첸나이 가전 공장
5월 18일	LG전자	인도 푸네 가전공장
5월 22일		인도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 총수 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월 17~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중국 산시성 당국자 회동
구광모 LG 회장	5월 20일	충남 서산 LG화학 공장 방문 국내외 사고 관련 사과

### 중국 인력 파견

5월 3일	LG디스플레이, LG화학	240여 명	난징
5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215명	텐진
5월 20일	LG디스플레이	170여 명	광저우
5월 21일	SK이노베이션	120여 명	연청
5월 22일	삼성전자, 삼성SDI	300여 명	시안

업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는 데 이어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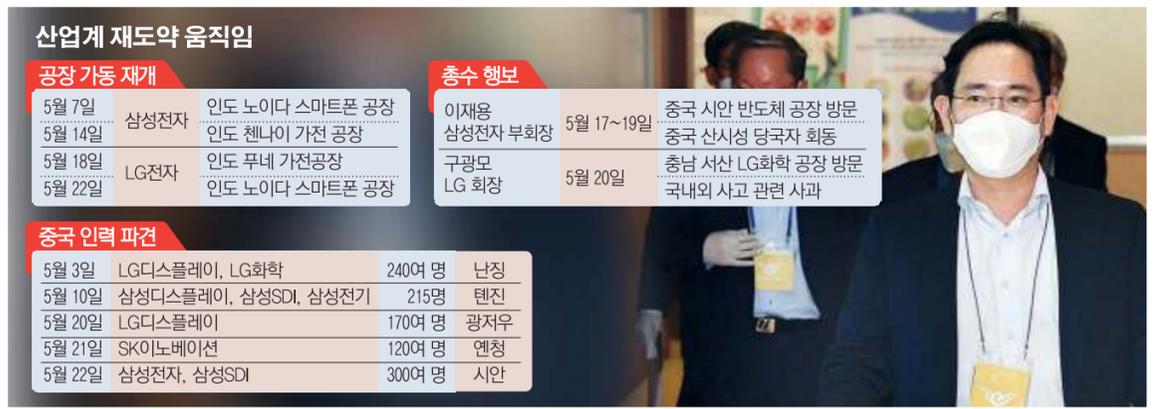
앞서 2018년 미·중 양국은 상대국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한 차례 벌인 바 있다. 당시 국내 주요 기

업들이 미·중 무역 전쟁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분기 실적이 꼬꾸라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양국의 무역갈등은 전방 시장을 침체시키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시장 침체도 우려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나지 않을까 더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는 미국 공장 설립을 발표했다. 파운드리 업계 2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코로나19에서도 선방한 1분기 실적을 거뒀지만, 2분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게 되면서 하반기 회복을 예상했던 경영계획도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코로나에 멈췄던 대기업 채용 '기지개'

삼성,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예정... SK 공채 필기시험 진행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춤했던 채용을 하나둘 재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4회로 나눠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치른다.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험을 감독한다.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총 2시간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5000여 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간 총 1만 명을 고용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도 이달 13일까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기술 연구·개발 인력 모집 접수를 했다. 현대차도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C&C·SK브로드밴드·SK매직 등 6개 계열사의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서경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공채 필기전형(SKCT)을 실시했다. 공정성에 중점을 둔 오프라인 시험을 결정했다.

고사장에서는 각각 2m의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했다. 시험관과 학생들은 손을 소독해야 하며 장갑과 마스크 착용도 의무다. 시험 전후로 방역을 진행한다.

단, IT 계열사인 SK C&C는 내달 6일 온라인으로 SKCT를 진행한다. SK그룹은 지난해 채용 규모인 8500여 명을 올해

### 주요 기업 채용 진행 현황 (5월 기준)

삼성전자	30~31일 직무적성검사(GSAT) 계획
현대차그룹	13일까지 UAM 기술 연구개발 인력 접수
SK그룹	24일 필기전형(SKCT) 실시
네이버	채용 연계형 여름 인턴십 채용
카카오	6일까지 인턴십 지원 접수
엔씨소프트	21일까지 하계인턴사원 서류 접수

도 유지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인성검사인 조직적합도 검사를 두 차례로 나눠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첫째 주(1~5일)는 롯데제과 등 18개 계열사 서류전형 합격자가 응시하고, 둘째 주(8~12일)는 롯데호텔 등 15개 계열사 서류합격자가 대상이다. 적성검사인 직무 적합진단 검사는 같은 달 20일 서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IT업계에서도 채용을 재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인턴십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채용 연계형 여름 인턴십으로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턴십 이후 면접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식이다. 카카오는 6일까지 인턴십 지원을 받았으며 인터뷰를 통해 6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도 하계인턴사원 서류 접수를 21일까지 받았다. 게임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게임 인공지능(Game AI), 스피치(Speech) AI, 비전(Vision) AI, 지식(Knowledge) AI, 언어(Language) AI,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18개 부문을 모집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통신 혜택과 카드 혜택의 만남!

### KB국민 Liiv M카드

LiivM 통신요금 자동이체하면 최대 1만 5천원 청구할인

#### LiivM 통신료 자동이체 할인 서비스

전월 이용 실적	1구간(50만원 이상)	2구간(100만원 이상)
할인 금액	10,000원	15,000원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율+3%p, 최고 연 24% \*연체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함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효잔액에 할부수수료를 적용 \*신용카드 남용은 기계경계에 위함입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2만원 \*전월 실적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할인 및 개별 서비스 한도가 적용됩니다. \*카드 신청 시 전월 이용실적, 할인한도 등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2b-02111호 (2020.03.15~2021.03.12)

# 저소득층 '코로나 직격탄'... 하위 10%만 소득 감소

서비스업 위축에 일자리 줄어  
공적이전소득 비중 절반 넘어  
근본적 일자리 대책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대부분 가구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하위 10% 가구에서만 소득이 줄었다.

24일 통계청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집계를 10분위별로 재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1분위(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95만9019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5분위를 기준으로 한 1분위(하

위 20%)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0.0%였다. 10분위별로 1분위 소득이 줄었지만, 2분위(하위 10~20%) 소득이 1.7% 늘어 5분위 기준으론 1분위 소득이 유지된 것이다.

10분위 기준 1분위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16만5966원으로 29.2% 급감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9만5000명 줄었는데, 취업자 감소는 중상위 지위별로 임시·일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나마 소득 항목별로 공적이전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50만176원으로 11.1% 늘었다. 총소득에서 공적이

전소득 비중은 절반을 넘어서게 됐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에서 총소득이 372만5818원으로 11.0%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입자 확대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확충의 영향이다. 60세 이상 가구를 모두 저소득층으로 보긴 어렵지만,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다.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저소득층 중에서도 저연령대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저연령대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사업소득의 존도가 높다.

반면, 1·4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선 가계소득이 늘었다. 그나마도 4분위는 감

소율이 0.2%에 그쳐 1분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분위별 증가율은 3분위 1.6%, 5분위 1.3%, 6분위 1.6%, 7분위 2.1%, 8분위 4.9%, 9분위 5.4%, 10분위 7.0%였다.

1·10분위 경계값 간 격차(P90/P10 배율)는 6.17배로 0.17배 벌어졌다. 경계값은 소득 분위기를 나누는 기준선이다. 1분위에선 최솟값, 10분위에선 최댓값이 경계값이다.

문제는 2분기부터다. 3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중앙·지방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할 수 있겠지만,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문제여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車 개소세 인하' 정부, 연장 고심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인하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세수 감소 우려나 장기간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로 일단 6월 말에 종료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최대 143만 원)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종료 시한이 돌아오면서 자동차업계는 인하 연장과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맞지만, 그에 따른 세수 감

## 코로나 19 실업급여 언제까지 얼마 받나

연령·고용보험 가입 기간 따라 달라  
최장 9개월간 월 198만 원 수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65만1000명)와 지급액(9933억 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으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모든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근무기간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여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실업급여는 사업자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으로 주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점도 지급 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은 연령과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급여(통상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만 5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각각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이면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된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다.

퇴직 전 월 500만 원(통상임금)을 받고,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52세 실직자의 경우 계산상 약 27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이 1일 6만6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수급액은 1782만 원(9개월간 월 198만 원)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봄비는 쇼핑몰 주말인 24일 경기 고양시 소재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점의 실내가 쇼핑을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 코로나 지역발생 다시 증가... 비상 걸린 '개학'

대구 학생 접촉자 5명·부천 소방관 관련 3명 등 감염경로 미궁  
'조용한 전파' 확산 우려... 노래방 등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발생이 다시 증가세다. 특히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밖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자 확인·격리도 불가능하다. 감염경로 불명의 지역발생이 학생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25명 증가한 1만11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지역발생 사례는 17명이다.

사례별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학

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사에서 경북 구미시 엘미교회 목사·신도 등 5명이 확진됐으며, 경기 부천시 부천소방서 구급대원 확진과 관련해선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두 집단감염은 아직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원이 미상이지만, 다른 집단에서 추가 전파가 진행 중인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은 이런 '조용한 전파'가 학생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증상이 발현된다면 등교 중지 대상이 되지만, 무증상 상태라면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학교 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대본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요청

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 내 집단감염의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의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는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 상태로 관리된다. 모든 정보는 수집 4주 후 파기된다. 시스템은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산업연 "3월 취업자 감소, 10명 중 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9000명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000명 수준이었지만 미가입자는 18만7000으로 82%에 달했다. 10명 중 8명 이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이들에게 몰린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의 경우, 실직보다는 신규 채용 감소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층에 고용 충격을 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월 대비 고용보험 취득자 증가 수는 지난해 3월 22만 명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8000명으로 급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산업연은 "실직의 문제는 대규모 예산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 급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해 실업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지만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 세수 감소·정책효과 고려 내달 '하반기 경방'서 확정

소와 잇단 개소세 인하로 정책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으로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에 따라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2018년 1~6월 평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 감소에 그쳤다.

다만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는 점에서 연장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면은 47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장한다면 코로나19로 줄어든 세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정·발표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 ‘게이’ 들키면 왕따·하고... 차라리 “여친 있다” 거짓말

##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성소수자는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커밍아웃 한 성소수자 44%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생활에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업무 배치나 임금,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다.

◇숨겨도, 드러내도 ‘차별 위험’ = 차별과 배제가 두려운 성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데 모든 신경을 기울인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가 발간한 인터뷰집 ‘나, 성소수자 노동자’와 인권위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 A씨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뒤편에 지니고 다닌다. 혹시나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리면 아웃팅(성 정체성을 원치 않게 드러내는 것)이 되고, 최악의 경우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을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필수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이 B씨는 “직장 동료들이 평소 내 행동이나 말투를 접하고 웃거나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친한 여성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해놓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성 정체성이 원치 않게 드러난 뒤 동료들이 이를 약점 삼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양성애자 C씨는 직장에서 아웃팅을 당한 뒤 “잘리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자신과 잠자리를 갖자”는 말을 사장에게 들어야 했고, 결국 그녀는 회사를 떠났다.

### 성소수자들 직장에서 어떤 차별을 겪나



“성정체성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해”  
게이 B씨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출산, 연애 이야기 안해”  
레즈비언 Q씨

“사장이 나의 성정체성 발미로 협박해”  
양성애자 C씨

“항상 주민등록증 뒤편에 지녀. 잃어버리면 자칫 직장을 새로 구해야 돼”  
트랜스젠더 A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회사에 도움을 요청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차별을 겪은 D씨는 정체성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료들은 되레 그를 외면했다.

◇보호 장치 드물고, 잘 지켜지지 않아 = 국내 기업 중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갖춘 곳도 있다.

포스코는 윤리 규범에 ‘성 정체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런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인권위 조사에 참여한 취업자 중 단 3.7%만이 “직장 내에 성소수자를 위한 제도가 인식 개선 교육, 우호적인 캠페인 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에 배타적인 사내 문화에는 이들을 낮설어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 시선도 한몫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소수자를 얼마나 배타적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결과는 심각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는 성소수자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 이탈주민(25%), 외국인 노동자(11%)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중걸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이던 경험이 전무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성소수자들이 회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

했다.

◇성소수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성소수자가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일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며 “당장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성소수자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 기업들이 성소수자 정책을 열심히 펴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차별로 인해 자칫 좋은 인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이는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업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유창욱 기자 woogi@

업무·임금·승진 불이익...사직 요구도 이주노동자·탈북민보다 노골적 편견 사내 괴롭힘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성소수자 평등하게 일할 제도 절실

## 해외기업의 성소수자 처우는

### 해외기업 성소수자 지원 현황

일본 혼다	- 동성 파트너 직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입양시), 공중화장실 등에 성소수자 인식한 마크 내걸어
일본 기린홀딩스	-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시 최대 60일 유급휴가
IBM	- 신입 직원 교육 때 성소수자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채용공고에 “성별 표현 등에 관계 없이 채용 기회 준다”고 명시
영국 아비바	- 성소수자 모임 ‘아비바 프라이드’

## 美 IBM 신입교육부터 성평등 강조 日 기업은 성전환수술때 유급휴가

성소수자 인권 보호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차이는 극명하다.

국내 기업은 행동 지침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만 넣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부재하다. 반면 해외 기업은 성소수자 모임 신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적극적이다. 혼다는 올해 4월부터 동성 파트너가 있는 직원들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사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사 건물 공중화장실, 사물함에는 성소수자들을 의식한 독자적인 마크도 내건다.

기린홀딩스는 트랜스젠더 직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때 최대 6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해준다. 토요타는 성소수자 직원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할 때, 사내 성소수자 모임과 연계를 도와준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성소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IBM은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 교육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강조한다. 채용 공고에도 “자격을 갖춘 모든 구직자는 인종, 피부색, 성별, 성별 정체성·성별표현·성적지향, 장애, 연령 등에 상관없이 채용 기회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영국계 보험회사인 아비바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 ‘아비바 프라이드’가 있다. 아비바 프라이드는 2017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영국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구글 사내에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직원들 모임인 ‘게이글러스’가 활동하고 있다.

성소수자 CEO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애플 CEO인 팀 쿡이다.

쿡은 2014년 커밍아웃하며 “나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이는 신이 내게 준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정의의 향배 차곡차곡 벽들을 깔며 햇빛이 드는 길을 만들고 있다. 커밍아웃이 내 벽돌이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유제품 업체인 랜드오레이크스의 CEO인 베스 포드도 성소수자다. 포드는 애플을 비롯해 펍시콜라 등 여러 기업을 거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당신에게. 딱 맞게. 잘 챙겨주는.

# 실속있는

# 보험

**간편가입형**

간편심사로 가입 문턱을 낮춘  
(우)교보실속있는  
간편가입충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건강보장형**

건강까지 챙겨주는  
(우)교보실속있는  
New건강플러스충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치매대비형**

간병 걱정을 덜어주는  
(우)교보실속있는  
치매충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생활자금형**

은퇴 후 생활비를 드리는  
(우)교보실속있는  
충신보험  
(보증비용부과형)

실속있게 부담을 낮춘  
교보생명의 다양한 충신보험을 만나보세요

형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저해지환급형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일반형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 상품은 공시이율로 부리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주요질병 및 주요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부형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행위적 위험 평가 등 개별 인디케이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2003-20 상품지원팀(2020.3.17) 생명보험협회 상의필 제2020-942(2020.3.24)

**KYOBEO**  
교보생명

# 문 대통령, 1년 6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 만난다

### 28일 오찬...일자리대책 등 논의 21대 국회 개원 전 '협치' 의지 원구성 협상 첫 실무회동 가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며 이같이 밝혔

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하고 두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해 성사됐다고 강 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018년 11월 5일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회동에는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의 대화만 진행될 예정이다. 강 수석은 "이번에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안도 논의

될 가능성이 있다.

21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둔 시점인 만큼 '협치'도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하나갈지 두 원내대표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당의 원내대표는 주중 국회에서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에서 만나 공식적인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의 공식 실무 회동은 이날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하지만, 수석 간 논의가 진척될 경우 원내대표 간 합의의 보폭이 커질 수 있다.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정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다만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 개혁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

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야 모두 탐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관례상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총선에서 177석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 몫으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순순히 두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줄다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두고도 간극이 커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여야 추모

### 이해찬 "사람 사는 세상 완성할 것"...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의 기일이다.

이번 추도식은 예년과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호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 명만 참석했으며, 지난 추도식까지 운영됐던 서울역~진영역 왕복 봉하열차와 전국 단체 버스는 올해 운영하지 않았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태영·정영애·천호선 이사 등 재단 임원을 비롯해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 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김홍걸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지자체에서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봉하마을을 찾았다.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한 가운데 야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7년 대선 직후 8주기 추모행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로 추모를 대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도 조화로 대신했다.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유족이 보낸 조화도 묘역에 자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저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역사의 주체로 바로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 민주시민으로서 끈기 자랐을 아이들에게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친구 같은 대통령, 당당한 지도자, 새로운 시대의 앞선 시민으로 언제까지나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인 23일 당 지도부, 21대 총선 당선인 등과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병석 의원, 이 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 '대세론' 이낙연, 당권 도전 막판 고심

### 다음 달 출마 여부 밝힐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조만간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와 관련한 결단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중 구성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경선 룰 논의 등을 살핀 뒤 이르면 다음 달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애초 지난 주말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내 의견 수렴 기간을 좀 더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 여부는 차기 대선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다. 이 위원장은 측근에게도

확실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신중을 기하는 중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애초 이 위원장은 당권 불출마 뜻이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에 중량감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출마 고민이 깊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위원장이 당 대표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대선 1년 전에 중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시한부 임기'를 갖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리질지도  
오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 건강한 Life is Good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건강한 홈 Life를 위해  
LG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 “빚 깎아줘” 아르헨 ‘셀프 디폴트’...신흥국 ‘연쇄부도’ 공포

“채무감면... 3년 상환 유예해달라”  
지급여력 있으면서 국가부도 선언  
“신흥국 투자 위험” 자본유출 경고음  
다음 디폴트 후보국 ‘바레인’ 꼽아



투자자들이 상환 유예 기간에 타협할 수 없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정권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재정 확장적인 정책을 내걸고 있는데 선불리 3년의 상환 유예를 인정하면 재정 규율이 해이해져 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채권단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악화하고 있다. 경제는 지난해까지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통화 가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폭적인 채무 감면을 옹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채무 재편 협상을 둘러싼 혼란은 신흥국 투자 위험을 재인식시켜 신흥국 전체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닷케이는 경고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동 레바논과 남미 에콰도르가 디폴트에 빠졌다. 이들 3개국 모두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작지만, 연쇄적인 디폴트는 신흥국 자금유출을 가속화할 리스크가 있다.

시장은 다음 디폴트 후보로 중동 산유국 바레인을 꼽고 있다.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에서 바레인의 프리미엄은 4.8%까지 올랐다. 이는 투자자들이 바레인의 디폴트 확률을 3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일상으로!”... 트럼프, 노마스크 라운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스티어링에 있는 트럼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로 골프장 출입을 중단한 지 2개월 반 만에 다시 필드에 나섰다.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연휴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는 경제활동 재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골프장에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장에서 트럼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스티어링/EPA연합뉴스

## 美 “개혁실패” 지적에... 中 “옛길 안 가” 반박

시진핑 “계획경제 아닌 시장이 결정적 역할 해야”...성장률 목표 제시 안 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약속된 개혁 이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최고 정치자문들이 모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우리는 시장의 맹목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계획경제의 옛길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 데 서로 뜻을 같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경제에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무역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경제적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중국 경제와 군사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시 주석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깊어지는 세계 불황을 포함해 무역 투자의 현저한 감소, 금융시장의 혼란, 국제 교류 감소,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위험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제13기 제3차 회의 경제계 위원 연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세상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중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올해 구체적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중국은 매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왔는데, 올해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오랜 관행을 깨트린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에 대해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다”며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경제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질적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최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나서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의 반역과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국양제 원칙에 의해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나, 중국 의회 격인 전인대는 국방 및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면서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인 제도,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글로벌 증시, 시총 24%↑ ‘기지개’

두 달 새 14.8조 달러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급락했던 세계 증시가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이 86개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21일(현지시간) 기준 이들 국가의 증시 시가총액은 총 76조3912억 달러(약 9경 4600조 원)로 집계됐다. 글로벌 증시 시총이 올해 저점을 기록했던 3월 24일(61조5849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 약 두 달 사이에 24.04% 증가한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두 달 새 14조8063억 달러가 늘어났다.

특히 짐바브웨가 무려 73.92%로 높은 시총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스리랑카(66.7%), 아르헨티나(66.8%), 키프로스(42.38%), 노르웨이(41.62%)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27.71% 늘어나면서, 전체 86개국 가운데 23번째를 기록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러시아(35.9%), 호주(33.92%), 미국(33.51%), 독일(28.67%), 영국(27.89%) 등이 한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크라이나(-39.55%), 바레인(-20.87%), 자메이카(-19.39%) 등 15개국

에서는 시총이 감소했다.

최근 세계 증시의 시총은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20일만 하더라도 세계 증시의 시총은 89조1565억 달러 규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3월 24일까지 코로나19 쇼크 증발한 금액은 무려 27조5715억 달러(30.9%)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201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1조6194억 달러)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주요국 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각종 경기 부양책과 돈 풀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둔화하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 코로나에 美 렌터카·소매업 휘청 ‘102년 역사’ 허츠 파산보호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해 미국에서 기업 연쇄 파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2위 렌터카 업체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 전역에서 700개 매장을 운영하던 가정용품 소매업체 역시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 소재의 렌터카업체 허츠(Hertz)는 전날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

정관리에 돌입,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허츠는 전날까지였던 자동차 리스대금 상환기한을 연장받지 못하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다. 3월 말 기준 허츠의 가용 현금은 10억 달러(1조 2405억 원)지만, 부채는 약 187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허츠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회사 중 하나로 꼽힌다. 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여행이 금지되면서, 공항에서의 차량

대여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허츠는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후 허츠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차량 구매비를 90% 삭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등 연간 25억 달러를 줄이는 자구책에 돌입했으나, 소용없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 델러스에 본사를 둔 소매업체 튜스데이모닝(Tuesday Morning)도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텍사스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설립된 튜스데이모닝은 가구, 가정용 장식품, 장난감 등 다양한 가정용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변효선 기자 hsbun@

# 신한-우리 '라임 배드뱅크 최대주주' 떠남기기 신경전

### 판매사 20곳 큰 틀 합의했지만 출자비율 등 세부조율 막판 진통

### "언론 주목도·사태 책임감 등 부담스러운 자리 탓에 협의 난항"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최대주주 자리를 서로 피하기 위한 막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한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출자비율 등 세부 조율을 놓고 여전히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진행된 기자회견 서면 간담회를 통해 '배드뱅크 5월 중 설립'을 공언한 만큼 이른 주중 판매사들이 합의를 마치고 출범을 공식화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운용사 형태의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약 50억 원 규모, 운영 기간은 6년 안팎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매사들은 출자비율과 금액 등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 판매사 연기된 라임 펀드 판매사 현황

(단위: 억 원)



있다. 판매 중단된 라임 펀드 판매 잔액에 비해 배드뱅크에 더 많이 출자하는 구조인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대주주가 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단일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3577억 원) 판매금액이 가장 많지만 그룹사를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 원·신한은행 2769억 원)이 더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 출자 지분율 1위는 언론 주목도와 라임 사태 책임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자리"라며 "출자비율 기준 협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이 일단 설립 합의만 마치면 최대한 신규 등록 심사 및 출자 승인 절차 등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1-2달 이내로 마무리되면 배드뱅크는 8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이 사기 등 대형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보다는 금융당국과 판매사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라임 자산의 부실화가 심해져 투자금 회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며 "고객 동의 없이 모든 부실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 사태라는 개별 금융사의 사기 행위를 배드뱅크로 처리하려는 것은 결국 투자자 피해의 초점을 흐리는 행위"라며 "만일 배드뱅크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법적 고발 등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지연 기자 sjy@

##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 '윤석현식 감독' 반기 든 은행들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경영활동을 옥죄는 '윤석현식(式) 관치금융'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제재 효력은 일단 정지되며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DLF 사태의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 원, 167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우리·하나, DLF 과태료 이의 제기  
키코 배상안 점점 도출 '지지부진'  
라임펀드 판매사에 선보상 으뜸장

금융위가 최종 의결했지만, 조사와 심의는 모두 금융감독원(제재심)이 맡았다. 양행은 사실상 윤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가 '임기 중 최대 고비'로 꼽히는 사태에 대해 당사자인 두 은행 모두 반기를 든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수용하면 DLF 사태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윤원장과 은행들의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가 교수 시절부터 '사기'라고 주장한 키코 사태도 수년째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배임과 불완전

판매 논란 속에서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산업·씨티은행은 이를 거부했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5번이나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런 반목의 불씨는 라임펀드 선보상 문제로 옮겨붙었다.

신한·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자출배상안 수용 논의를 미루자, 윤원장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판매사를 압박했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 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 원의 30%인 3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이후 평가액 1억 원 중 75%인 7500만 원을 가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분조위를 앞두고 운용사 위반에서 비롯된 문제를 금감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적절한 절차와 내부 통제에 따라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분쟁만 생기면 '답정너식'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은행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내일부터 '은행 ↔ 제2금융권' 계좌이동 가능

### 카드대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 타금융사로 일괄 이동 서비스 제공 보험사 등 연내 가맹점 추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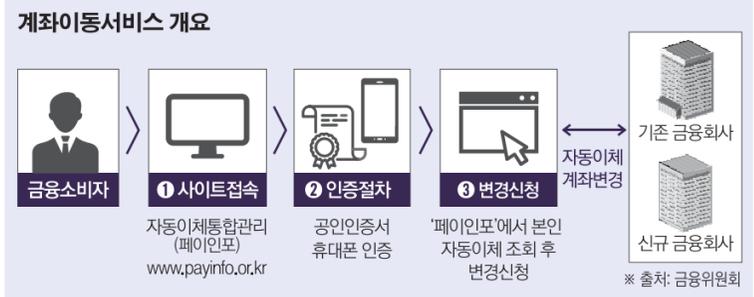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통신폭금, 카드대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옮겨거나, 반대의 경우도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전체가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가령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치가 가능한 카드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업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자동납부 조치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 신한금융 '원신한패널' 화상 간담회

### 온택트 주제 협업 시스템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22일 그룹 내 고객기반, 디지털,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신한패널'의 정기간담회를 그룹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신한패널'은 그룹 차원의 원신한(One Shinhan) 경쟁력 강화 및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해 젊은 실무진급으로 구성된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다.

'On-tact, One-Shinha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정기 간담회는 그룹의 원신한 전략 방향에 대해 패널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직문화 전문가와의 독서토론을 통해 그룹의 온택트 소통 방향성에 대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그룹이 나아가야 할 소통 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3월 발대식 이후 팀별로 논의해 온 그룹의 온택트 소통 방안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물 발표 시간을 가졌다.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그룹의 비대면 마케팅 방향'과 '온택트 소통 문화 정립' 등을 주제로 3개월간 심도 깊게 연구한 결과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택트라는 주제를 화두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창의적이



신한금융그룹 '원신한패널' 임직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또한 그룹 외부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협업 솔루션을 비교 분석해 그룹에 적용 가능한 자체적인 온라인 협업 시스템 개선 방향도 구체화시켰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그룹 내 온택트 소통문화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온택트 기반으로 직원 간 그리고 신한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과 막힘없이 항상 연결돼 있는 신한금융그룹의 소통 경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화상회의에 참여한 전원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덕분에챌린지' 국민 캠페인에 동참하며 행사를 종료했다.

서지연 기자 sjy@

## 2차 소상공인 대출, 4일 만에 2만여명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2만여 명이 몰렸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낮아졌지만 예상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은행을 찾았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2차 긴급대출 건수는 2만9199건이다. 금액으로는 2091억90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며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는 것도 영

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가 연 3~4%대다. 1차 대출(연 1.5%)의 두 배가 넘는다. 대출 한도도 최대 3000만 원이던 1차 대출에 비해 1000만 원으로 줄었다. 1차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차 대출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차 대출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소상공인에 문을 열었고, 코로나 사태의 여파도 여전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안 좋은 소상공인에게 연 3~4%의 금리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도 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

### 주요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 현황

\*기간: 5월 18~21일(4일간), 전체신청금액: 2091억9000만 원  
■ 비대면 접수(1만527건) ■ 대면 접수(1만392건)



하 영세 소상공인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은 연 20% 안팎 수준이다.

한편, 5대 은행 외에도 기업은행, 대구은행에서 2차 코로나 대출 접수를 받는다.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이뤄진다.

서지연 기자 sjy@

# 위기의 정유4사, 석달 만에 유동자산 2조 늘렸다

### 사상 최대 적자에 '안전핀' 마련 에스오일 증가폭 422% 가장 커

### 유가상승 기대감에도 긴장 여전히 美·中 무역분쟁 다시 격화 조짐

올해 1분기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닥뜨리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국내 정유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고삐를 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폭락에 따라 정제마진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며 석유제품을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감소하자 발빠르게 유동성부터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가 24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단기 유동자산을 계산한 결과 9조5513억 원



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7조4607억 원보다 28.02% 증가한 수치다.

단기 유동성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곳은 에스오일이었다. 에스오일의 지난해 말 단기 유동자산은 2882억 원에 불과했으나, 3개월 만에 1조5044억 원으로 무려 421.95% 급증했다.

이어SK이노베이션이 1분기단기 유동자산을 전년 말보다 16.95% 증가한 5조3080억 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GS칼텍스의 단기 유동자산은 13.98% 늘어난 2조4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현대오일뱅크는 1분기단기 유동자산이 3개월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4858억 원에 달했던 단기 유동자산은 1분기 말 3286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 다만, 이는 연결 자회사인 현대케미칼의 중질유 분해설비(HPC)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자체의 단기 유동 자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현대케미칼

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이 이처럼 유동성 확보에 열을 올린 데는 이미 시황 악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발생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분기에 국내 정유사의 손실액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도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유사들로서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정유사의 유동성 확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래깅 효과(유가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 실제 석유제품을 판매했을 때 정유사가 얻는 마진) 등이 기대되면서 시장의 회복 조짐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요 회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장밋빛 전망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2분기에도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정유업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펫' 모델에 로즈골드 추가  
LG전자는 20·30대가 선호하는 로즈골드 색상을 적용한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 신제품 2종을 25일 출시한다.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펫은 기존 제품 대비 탈취 성능은 물론 탈-먼지 제거 성능이 강화됐다. 이달 들어 펫 모델의 비중은 40%에 이른다. 출하가는 119만9000~156만9000원이다. 사진제공 LG전자

## 항공권 '눈물의 세일' ...버스보다 싸네

### 서울-광주 LCC 2만원 < 우등고속 2.8만원 < KTX 4.6만원

#### 국내선 '코로나 특가' 경쟁 기차 승차권의 절반 수준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지방에 갈 일이 생겨 교통편을 알아보다 기차표보다 절반도 안 되는 항공권 가격에 깜짝 놀랐다. 심지어 고속버스 티켓보다도 몇 천 원이나 저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을 거의 띄우지 못하며 전례 없는 공황에 빠진 항공업계가 그나마 남은 국내선 고객 확보를 위해 항공권 가격을 초특가로 내놓고 있어서다.

23일 항공업계 및 코레일 등에 따르면, 평일 기준 서울-광주 노선 저비용 항공사(LCC) 티켓의 최저 가격대는 2만~2만4000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3만

원대 항공권을 판매하는 대형항공사(FSC)도 있다. 반면 KTX 가격은 4만6000~4만7000원대로 LCC 항공권보다 2배가량 비싸다. 고속버스도 우등좌석 기준 평일에는 2만8100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비행기가 가장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가격 기준으로 '비행기>기차>고속버스'에서 '기차>고속버스>비행기' 순으로 앞뒤가 뒤바뀐 셈이다.

여기에 항공사들이 종종 국내선 특가 이벤트를 통해 1만 원대, 심지어 1만 원 이하 안 되는 가격까지 내놓고 있어 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행기 한 대를 띄우는 데 드는 고정비와 수익을 감안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의 최저 마지노선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행기 한 편당 수익을 내려면 정상 운임을 적용하면서도 탑승률은 최소 75%를 기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운임, 탑승률 모두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지나치게 싼 항공권을 내놓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바닥 친 여객 수요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수개월간 전 세계 하늘길도 닫히고 국내 여행객도 감소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국내선 항공권조차도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항공사별 노선 경쟁이 조금이라도 일어날 경우 곧바로 가격이 올라갔지만, 현실에서는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확보하는 취지에서 어떤 항공사들도 함부로 항공권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삼성 갤럭시 헬압 이어 심전도도 측정

### 식약처 허가...3분기 앱 출시

삼성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측정 앱을 21일 허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허가 조치로 사용자는 4월 헬압 측정 앱 허가를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헬압뿐 아니라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

심전도 측정 앱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 동리듬(Sinus Rhythm)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을 측정하고 분석해 표시해 준다. 심전도 측정 방식은 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앱을 열고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 가량 스마트 워치의 상단 버튼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심방세동은 흔한 부정맥 질환 중 하나지만, 많은 환자가 무증상으로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해 혈전, 심부전, 뇌졸중 등을 포함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심전도 측정용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올해 3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및 향후 심전도 측정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현대차 'E-포레스트'·쌍용차 'e-모션' ...친환경차 상표 준비

### 현대기아차 "月 수백개 상표 선점" 쌍용차, 코란도 기반 전기차 검토

국내 완성차 메이커들이 속속 친환경차 브랜드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는 'E-포레스트(E-Forest·사진)'를, 쌍용차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e-모션을 내세운다. 기아차는 10월 새 로고를 앞세워 전기차 시대를 준비한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출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친환경 전기차가 급부상 중이다. 지난해 말 시작한 코로나19 확산 탓에 1분기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크게 위축됐다. 나아가 3월에 시작한 글로벌 확산(팬데믹) 이후 2분기 실적은 사실상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 친환경 전기차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회복세를 주도할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 주요 국가의 친환경차 지원책이 자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자동차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요 국가는 친환경 전기차 구매 지원을 확대 또는 부활시키고 있다.

국산차 메이커도 속속 친환경차 브랜드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장 침체가 극복을 위해 이들 친환경차의 조기 출시까지 검토하는 등 출구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코나와 니로, 쏘울 등 소형 SUV에 집중된 전기차 및 친환경차 전략을 상용차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 MOU를 맺는 등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앞서 포터와 봉고3 기반의 순수 전기차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나아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E 포레스트'라는 별도 브랜드를 검토 중이다. 차 이름 앞에 숲을 의미하는 '포레스트'를 추가해 숲으로 상징되는 친환경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신기술과 디자인, 상표권 등 매출 수백 개에 달하는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중이고 포레스트 역시 이 가운데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상용 친환경차 브랜드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쌍용차 역시 준중형 SUV 코란도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e-모션'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상표권을 선점한 상태다. 나아가 사내 공모를 거쳐 추가적인 후보군을 더 모색한 이후 최종 브랜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기차 브랜드로 여러 후보를 검토 중이며 e-모션 역시 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시상 200개 기업에 106억원 지급

SK는 25일부터 5일간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행사를 SK와 사회적가치인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은 첫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초기에는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외부 우려도 컸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화폐가치 측정을 연

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5년간 측정체계를 만들고 작동 여부를 살펴봤다면 앞으로 5년간은 해외에 확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SK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에 200개 기업이 참여, 598억 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센티브 106억 원을 지급한다. 사회성과인센티브란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된 뒤 이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김미려 기자 kimstar1215@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문의 ☎ 02)120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자영업자의 두 가지 생존전략



70만원씩  
2개월 현금 받고!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몰려오는 손님 받고!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금 바로 신청!

지원금액: 70만원 X 2개월(현금)

신청기간: 5.25.(월) ~ 6.30.(화)

지원대상: 서울소재 사업장 중  
2019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 업력 6개월 이상 /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제외

## 결제수수료 없이 판매자 통장으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자 혜택: 결제수수료 0% + 점점 늘어나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손님

소비자 혜택: 소득공제 80%(7월 말까지) +  
쓸 곳 더욱 많아진 서울사랑상품권

※ 폭발적인 관심으로 서울사랑상품권 10% 할인이  
조기 종료된 지역이 많아진 점 양해바랍니다.

코로나 보릿고개, 서울이 함께 넘겠습니다!

서울씨,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

# 소셜벤처기업, 투자·지원 받기 쉬워진다

판별·평가 대상 확대... 임팩트 투자사·지자체도 신청 가능  
 전용 플랫폼 '소셜벤처스퀘어' 통해 판별신청 방법 일원화  
 기보, 벤처캐피털 7곳과 협약... 임팩트 투자 활성화 기대

소셜벤처기업 판별 대상 기업이 올해 4월부터 대폭 늘어나 임팩트 투자사,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에서 소셜벤처 투자·지원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개정해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셜벤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기준에는 소셜벤처기업 판별 대상 기업

이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한 기업으로 한정됐다. 그 외에 임팩트 투자사나 지자체가 어떤 기업에 대해 소셜벤처기업임을 판별받고 싶어 하면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임팩트 투자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을 뜻한다.

소셜벤처 활성화 기조에 소셜벤처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도 확대되면서 임팩트 투자사나 지자체가 어떤 기업에 대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에 기보는 지자체, 임팩트 투자사를 포함한 소셜벤처 유관기관이 신청한 기업,



기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도 판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이후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총 5개 기업에 대해 소셜벤처기업 평가·판별을 요청했다. 동시에 기보는 4월부터 이 두 곳을 포함해 △대성창업투자 △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 △엠 와이소셜컴퍼니 △KB인베스트먼트 등 7곳의 VC와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보는 소셜벤처 판별을 지원하고, 협약을 맺은 VC들에 소셜벤처 기업을 추천할 예정이다. VC는 기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소셜벤처 평가·판별은 기보에서 하는데 법적 기반이 있는 '인증' 개념은 아니다. 다만, 판별을 시행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판별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 판별 신청 방법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기보 사이버 영업점이나, 2018년 말 서울 성수동에 만들어진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로 접수를 받았다. 올해 1월 소셜벤처 전용 플랫폼 '소셜벤처스퀘어'가 만들어지면서 판별 신청 방법이 일원화됐다.

한편, 중기부는 기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7월부터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소셜벤처 업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으며 이달 초 그 결과가 발표됐다.

소셜벤처 판별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지표로 구성되며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한다. 다만, 판별 기준에서 미달한 기업일지라도 자문위원회(5인 이상, 업력 3년 이상 소셜벤처 대표를 40% 이상 포함)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검토해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셜벤처기업 수는 998개사다. 2016년말 601개사에서 급속히 증가해 올해 1000군데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화장품사업 뛰어든 문구업체 "쉽지 않네"

모나미 등 문구업체가 화장품 산업에 뛰어듦에 따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화장품 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나미는 사업 목적에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추가했다.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다. 모나미는 지난해 화장품 생산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생산공장 설비를 마련해 이어 코스메틱 사업부도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준비해왔다.

문구 시장이 침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모나미는 정관변경의 이유를 '매출 증대 및 기업가치 제고'로 공시했다. 문구류를 제조하면서 쌓인 색조, 펜촉 등 관련 기술을 적용해 색조·아이라이너 중심 고품질 화장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모나미의 실적은 부진하다. 모나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4억780만 원으로 전년 동기(17억



모닝글로리 학생용 화장품 '밀키글로우'.

**문구사업 침체에 사업 다각화**  
**지난해 모닝글로리 진출 이어**  
**모나미도 사업부 신설 등 속도**  
**코로나로 화장품 시장 먹구름**

2483만 원) 대비 76.35%나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3억380만 원으로 136.3% 줄며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 역시 0.43% 감소한 335억791만 원을 기록했다.

'일제 불매운동' 확산에 따라 반사이익이 늘었지만 실적 회복은 요원하다.

모나미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위한 설비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1

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외부 영향도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문구업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장품 시장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앞서 문구업체 모닝글로리는 2018년 1월 처음으로 화장품을 출시한 데 이어 10월에 코스맥스와 협업해 화장품 브랜드 '밀키글로우'를 론칭하며 10대용 화장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틴트 밤, 스팟 패치 등을 출시하며 화장품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까지 막히면서 화장품 업계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중국·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업계가 중국의 '한한령'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입으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설 곳은 더욱 줄어들고 있던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모나미 관계자는 "지금 은 화장품 사업 초기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단계"라며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이 아닌 주문제작 등 제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제품 개발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카트라이더 경기, 실감나는 '아비타 응원'** SK텔레콤 '2020 SKT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결승전이 생중계된 '점프VR'내 소셜룸에서 뜨거운 '아비타 응원원'이 펼쳐졌다. SK텔레콤 모델이 '점프VR' 소셜룸에서 결승전을 보며 아비타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 중기부, 1500여개 스타트업에 최대 1억 투자

**다음달 3일까지 1차 접수**

정부가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 개 스타트업에 최대 1억 원 이내로 매칭 투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지는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1500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연계 투자 계획을 공고하고, 희망 기업을 이달 26일부터 6월 3일까지 1차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민간 벤처 투자 시장에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이뤄진다. 투자 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 등 중기부 대표 창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사업성과 성장성 등을 인정받고 기존 투자 유치 실적

이 없는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이다.

중기부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접수 1개월 이내인 7월 초까지 투자금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5억·10억·15억 원 중 하나를 기업가치로 선택해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 선정 회의에서 신청기업의 투자 여부와 적절한 투자기업 가치를 심의해 확정한다.

확정 이후 최대 1억 원, 투자 후 지분을 10% 이내에서 신주 보통주를 인수한다. 또, 투자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투자기업 임직원에게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에 최대 50%까지 풀옵션(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에 대해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LG U+ '충남 실감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MOU**

LG유플러스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충남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제조업과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2024년까지 KTX천안아산역 일원 20만㎡에 국비 216억 원, 도비 165억 원, 사·군비 175억 원 등 모두 556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클러스터에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글로벌게임센터, VR·AR제작센터, 빅데이터센터 등 콘텐츠 분야 거점형 시설이 구축되며, 실감콘텐츠 스타트업 및 전 단계(창작·제작·유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맹창호(왼쪽)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최운호 LG유플러스 AR/VR 서비스담당(상무)이 업무 협약을 들어보고 있다.

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클러스터 내 △VR·AR 기능 중심의 5G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 연계 협력 △충남 지역 실감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실감콘텐츠 고도화를 위한 기술 연계 및 기술지원 전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구축 △실감콘텐츠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최운호 LG유플러스 AR/VR 서비스담당은 "LG유플러스는 5G 혁신형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맹창호 진흥원장은 "도내 VR·AR 중심의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LG유플러스의 차별화된 5G서비스를 통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충남 실감콘텐츠 R&BD 클러스터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5G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 한컴, 7월부터 강남구서 'IoT 공유 주차 서비스'

한글과컴퓨터그룹은 7월부터 서울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대상으로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컴그룹은 강남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4800면을 대상으로 IoT 주차센서를 설치한다. 이곳에 한컴모빌리티의 IoT 공유주차 플랫폼 '말랑말랑 파킹프렌즈'를 적용해 주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7월 중 1300면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내년 7월

까지 4800면 전체에 적용한다.

7월부터 운전자들은 모바일 앱 '말랑말랑 파킹프렌즈'와 '더강남'을 통해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 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 주차비용은 30분당 900원이며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카카오페이로 가능하다.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전화 결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atiio@

# “팔도, 한판 붙자” 매콤하게 달아오른 ‘비빔면 리그’

비빔면 시장 年10%대 성장... 부동의 1위 팔도 아성에 도전  
농심 ‘칼빔면’·오뚜기 ‘진비빔면’·삼양 비빔면 3종 등 출사표

“걸으면 땀이 나고 옷장에서 반팔 셔츠를 꺼냈다면 ‘비빔 때’가 됐다”는 뜻이다. 비빔면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다.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울여름 비빔면(계절면)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이다. 비빔면의 대명사 ‘팔도비빔면’을 앞세운 팔도가 부동의 1위지만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이 새롭게 선보인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어서다. 비빔면 시장에서 팔도는 수년째 6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난공불락의 아성을 지켜왔다. 비빔면 시장 규모도 매년 꾸준히 10%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4년 672억 원이었던 비빔면 시장은 2018년 1318억 원으로 2배 커졌다. 지난해 전체 비빔면 시장 규모는 3분기까지 113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성장률이 확실시된다. 전체 라면 시장이 2013년 2조

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라면 3사로서는 팔도의 아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팔도비빔면’과 ‘팔도네넬면’을 앞세운 팔도는 충성고객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전체 비빔면 시장에서 64.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팔도비빔면 판매량(봉지면 기준, 팔도네넬면 제외)은 2017년 9900만 개, 2018년 1억3000만 개, 2019년 1억1500만 개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크림분말소스를 더한 ‘팔도BB 크림면(이하 BB크림면)’을 새로 내놨다. 팔도네넬면(팔도비빔면 매운맛)에 이은 두 번째 확장판으로, 할라피노 등을 넣어 매운맛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팔도는 이 제품으로 비빔면 브랜드를 연중 즐기는 제품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집밥족이 늘면



서 1분기에 매출이 급증한 라면 업체들의 시장 확대 의욕이 충만한 분위기다. 업계 1위 농심은 지난달 ‘칼빔면’을 새로 출시하며 여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칼빔면은 최근 여름 별미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빔칼국수를 모티브로 한 제품이다. 칼국수 모양의 면발로 탱글탱글하고 찰진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최근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칼빔면 한정판 세트 5000개는 6시간 만에 완판됐다. 오뚜기는 3월 출시한 ‘진비빔면’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진비빔면은 출시 50일 만에 15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는데, 이는

2015년 출시돼 큰 인기를 끌었던 진짬뽕(50일 만에 1000만 개 판매)보다 빠른 속도다. 진비빔면은 태양초의 매운맛에 사과와 타마린드양념소스로 새콤하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맛을 더한 제품이다. 진비빔면의 스프는 ‘만능양념소프’로 알려진 ‘진라면 매운맛’의 노하우로 중독성 있는 매운맛과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또, 기존 비빔면의 양이 적어서 아쉽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뚜기 메밀비빔면(130g) 대비 중량을 20% 늘린 156g으로 만들었다. 삼양식품은 3월 ‘불타는 고추비빔면’에

이어 ‘도전! 불닭비빔면’을 연이어 선보이며 비빔면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 제품은 기본 액상소스와 별도로 ‘도전장 소스’를 더해 액상소스가 2개인 것이 차별화 포인트다. ‘도전! 불닭비빔면’의 기본 액상소스는 불닭 특유의 매운맛에 태양초 고추장, 동치미 진액 등을 첨가해 ‘스코빌 지수 2000’ 수준의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비빔면을 맛볼 수 있다. 여기에 강렬한 매운 맛에 도전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스코빌 지수 12000’에 달하는 도전장 소스를 추가 구성해 재미를 더했다. 이 제품은 4월까지 300만 개 판매되며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여름 계절면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며 소비자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어 매년 비빔면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전! 불닭비빔면, 불타는 고추비빔면, 열무비빔면 등 각기 다른 매력의 3가지 제품을 앞세워 울여름 비빔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편의점서 만나는 다이어트 간편식 세븐일레븐은 국내산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과 함께 다이어트 간편식 ‘닭가슴살리얼바(120kcal)’를 단독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닭가슴살리얼바’는 닭가슴살을 스팀 방식으로 만들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며,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 빨리 찾아온 더위... 전운 감도는 맥주시장

롯데칠성 ‘클라우드 생’·어메이징 ‘수제라거’ 신제품 앞세워 선점 경쟁

맥주의 계절이 빨라졌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며 맥주 성수기도 한층 빨라졌다. 주류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달 1일 신선한 생맥주 ‘클라우드 생(生) 드래프트’〈사진〉를 출시한다.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는 100% 맥아(Malt)만을 사용한 올몰트(All Malt) 맥주로 기존 ‘클라우드’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생맥주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신선한 맛과 톡 쏘는 청량감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5도, 출고가는 1047원(500ml 병 기준)이다. 이번 신제품은 330ml 용량의 슬릭(Sleek) 캔을 도입해 그립감과 휴대성을 높였다. 칭따오(TSINGTAO)는 ‘칭따오 콜라

백 패키지 2종’을 울여름 한정판으로 내놨다. 칭따오 콜라백 패키지는 칭따오 라거 캔맥주와 시원한 온도를 오래 유지시켜줄 수 있는 콜라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칭따오 콜라백 패키지는 2종으로 구성됐다. 500ml 캔 제품 8캔으로 구성된 휴대용 콜라백은 해변과 야자수, 파란 하늘을 모티브로 청량한 여름 휴가 분위기를 담고 있고, 홀더형 콜라백은 맥주를 마시다 기도 꽃아 놓도록 한 거치 기능을 더했다. 수제맥주 기업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이하 어메이징)는 편의점 CU에 ‘서울순 수제라거’와 ‘노 수제에일’을 선보였다. 어메이징은 국내 업계 최초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여 2016년 성수등을 시작으로 잠실, 건대, 인천 송도



에 브루업을 운영 중인 국내 수제맥주 스타트업이다. ‘서울순 수제라거’는 알코올 도수가 5.3%인 500ml 용량의 캔맥주로 최상급 노블홉을 사용해 풍미를 높였다. ‘노 수제에일’은 미국식 페일에일 스타일의 감귤향이 매력적인 맥주로 500ml 용량의 캔맥주 타입으로 출시됐으며 알코올 도수는 4.5%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GU 접은 유니클로, 진점점도 문 닫는다

불매운동에 코로나19 제약  
사업 조정 필요성 6번째 폐점

일본상품 불매 운동으로 유니클로가 국내 사업의 몸집을 줄이고 있다. 자매 브랜드 ‘지유(GU)’ 철수에 이어 홈플러스 진점점도 문을 닫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이날(24일)을 끝으로 유니클로의 홈플러스 진점점을 폐점한다. 이 점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 홈플러스 진점점 지하 1층에 위치한다. 지난해 일본상품 불매운동 이후 유니클로 매장 수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6월 말 유니클로 매장 수는 187개였지만, 올해 4월 1일 기준 182개로 줄어 이마트 월계점과 군산 롯데마트 점 등 5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이에 앞서 이달 21일에는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 ‘지유(GU)’의 한국철수 소식이 알려졌다. 지유는 2018년 9월 잠실 롯데월드몰점에 한국 첫 매장을 오픈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한 후 지난해 8월과 9월 차례로 2호점과 3호점을 내며 총 3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한국 시장 진출 2년도 안 돼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자유 온라인 스토어는 7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자매 브랜드인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불매운동과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또 패션업계 전반이 이커머스로 사업 방향을 옮겨가며 이에 대한 사업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오프라인 매장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에 시달린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최근 ‘인력 구조조정’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배우진 대표는 최근 사내 인사부문에 보내려던 메일을 전 직원에게 잘못 발송했는데, 그 메일에 인력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구조조정설도 불거졌다. 다만, 이번 자유 매장 영업 중단 이후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에프알엘코리아 측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유 관련 직원들도 에프알엘코리아 소속인 만큼 유니클로 매장에서 일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직원들과 계속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패션가도 언택트 ‘모바일 커머스’ 진출

2030 공략 위해 판매채널 확대  
LF 셀렉티브·한섬 유튜브 호응

코로나19 확산으로 패션업계가 체질 개선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며 백화점, 아울렛, 가두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온 패션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1분기 31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LF는 영업이익이 13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급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패션 전문기업 한섬도 백화점, 아울렛 실적이 악화해 매출(2715억 원)과 영업이익(293억 원)이 모두 10%대 감소를 보였다.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며 패션업계는 밀레니얼 세대와 접점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에 나섰다. 모바일 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까지 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속속 뛰어들며 비대면 쌍방향 소통을 강



화한 것이다. LF는 21일 뉴욕 감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뉴욕(JILLSTUART NEWYORK) 남성’을 네이버 쇼핑 채널 ‘셀렉티브’〈사진〉에서 소개했다.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질스튜어트뉴욕 남성의 데일리웨어를 선보이며 시청자들과 소통했는데 방송 하루가 지나지 않은 22일 정오 기준 해당 영상은 누적 1만1100 조회수를 넘겨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갑작스럽게 열린 이벤트로 준비한 ‘크레이프 티셔츠’는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렸다. LF는 지난달부터 고급 컨템포러리 브랜드 ‘알레그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도 2주에 1회씩 진행하고 있다. 라이브 영상 편집본은 ‘LF MAN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섬도 온라인 몰인 더한섬닷컴에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선보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과 개그우먼 안영미가 출연해 ‘데님 팬츠 스타일링’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SJSJ : SUMMER 데일리 룩 스타일링’이란 주제로 여름 패션 코디법을 소개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채널 ‘챗라이브’와 손잡고 모바일 판매에 속도를 낸다. 첫방송에서 선보인 ‘코모도’의 히트 상품인 ‘러브 컬렉션’, ‘쥬시 꾸뛰르’의 애슬레저 라인은 목표 매출을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스किन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커머스’를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명확한 표준지침 없이 대학 재량에 맡겨” 대입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논란

대학별 기준·절차 공개범위 달라  
또 다른 불공정 시비 불러올 수도  
대학도 “공통 표준안 만들어달라”

올해 2학기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는 ‘이의신청 제도(가칭)’가 표준안 등 정확한 지침 없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 제도가 대학 재량에 따라 운용되면서 불공정한 입시 전형을 개선하려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0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70여 곳이 이의신청 제도 시행에 맞춰 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마다 수험생을 평가하는 기준과 행정제도, 인제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량껏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면서 “추후에도 가이드라인을 만

들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제도는 지난해 11월 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입된다. 수험생들은 수시와 정시 등 대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각 대학 입학처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일부 수시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없이 대학 자율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다. 한 입시전문가는 “사실상 공통 가이드라인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별로 이의신청 과정 공개 범위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깜깜이 제도’일 뿐”이라며 “왜 불합격했는지 억울해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좀 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답변이 가능하도록 공통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대

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의 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절차가 마련되면 대개 불합격자가 대입 전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선 쏟아지는 이의신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대교협 등 교육당국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험생과 대학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학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한 가운데 대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장미향 가득한 종량천** 비가 그친 뒤 맑은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종량천 장미길에 만개한 장미가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이 이번주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주 후반부엔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오늘부터 접수

두 달간 140만원 현금 지원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상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방문 접수도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등이다. 다만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자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

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다.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접수한다. 토·일요일인 20·21일과 27·28일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는 출생연도에 따른 10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22·23·24·25·26일에 각각 하면 된다. 접수 기간 중 마지막 이틀간인 다음 달 29·30일은 누구든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을 해 줄 수도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배상 책임 향소심 “고객 1인당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 1심 판결 뒤집어

법원이 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숨겼으며 코웨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A 씨 등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수기 대·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코웨이는 2015년 렌탈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

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

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1심을 뒤집었다.

김종용 기자 deep@·조성준 기자 tiatio@

재미

공감

위로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채널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채널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채널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FTA 힘입어 농산물 수출 급증... “이젠 신북방 개척”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

### ① 농산물 시장 개방 30년... 전세계와 FTA로 연결

#지난해 한국산 딸기는 태국으로 672만 7000달러를 수출했다. 2006년 4000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가 40%에서 5%로 낮아졌고, 한국산 딸기가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만든 성과다. 지난해 칸마늘의 수출 성과도 눈부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3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칸마늘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291만 2000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한 뒤 무관세율이 적용된 데다, 마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에 추가관세(10%→25%)를 부과하면서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아진 탓이다. 여기에 정부의 판촉과 마케팅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이 급증했다.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파도다. 내수 시장이 좁고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세계와의 연결고리인 FTA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을 시작으로 최초의 FTA인 2004년 한-칠레 FTA를 체결했다. 이후 지금까지 16건의 FTA를 체결, 55개국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55개 국가와 FTA 16건 체결**  
**지난해 41억3000만 달러 수출**  
**고품질 인식, 가격 경쟁력 높아**  
**신선·음료·가공 분야 모두 선전**

◇FTA ‘희생양’ 농업... 수출 한 축으로 자리 잡아 = FTA는 항상 ‘양날의 검’으로 인식된다. 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정상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수입보다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앞선다. 이 과정에서 특히 농업은 대표적인 피해 분야로 항상 지목된다.

1차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은 늘 FTA의 ‘희생양’으로 부각된다.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까 걱정이 크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정부가 전 세계 무역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업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문을 연 뒤 우리 농업은 죽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전히 건재하다. 낮은 식량자급률 탓에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수출 증가폭도 크다. 이제 농업은 식량 안보를 넘어 수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2.8% 줄어든 343억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도 4.8% 감소한 28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70억3000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2.6% 늘어난 41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액은 여전히 수출액보다 많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농축산물 수출입에서 한국이 더 이득을 보고 있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한국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농산물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열린 제56회 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K-프레시 존’.

역의 날 축사에서 “식품 분야에서 FTA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해 걱정만 했지 우리 식품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은 수출액이 가전제품 수출액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커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 ↑... 고품질로 세계시장 도전 = FTA 주요 체결국별로 세분화하면 수출 증가폭은 더욱 뚜렷하다. 2007년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주요 10개국과 체결한 한-아세안 FTA는 농산물 교역의 가장 큰 창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세안 국가로의 농산물 평균 수출액은 11억2200만 달러다. 2018년 아세안으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3억7500만 달러까지 올라섰다.

농산물 수출 증가의 1등 공신은 역시 관세 인하 효과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자리 잡은 ‘한국산 = 고품질’이라는 인식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세안에서는 무관세 적용 이후 곡물, 음료, 차류, 기능성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베트남 음료 수출이 최초로 3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유럽연합(EU)에서는 웰빙 트렌드로 인

### 러시아·몽골 등과 FTA 추진 소비층 맞춤형 유망품목 발굴 내년 ‘유라시아 K-푸드’ 행사

한 발효식품 선호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지 유명 셰프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추진 등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소스류 수출이 10년 사이 4배로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산 버섯을 대체하면서 새송이버섯은 2009년 수출 시작 이후 약 6배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신북방 시장 개척... FTA 앞서 수출 활성화 기대 = 이제 정부는 새로운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교류가 적었던 러시아와 몽골 등, 이른바 신북방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은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러시아와 FTA 3차 협상을 진행했고, EAEU(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과는 FTA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한창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몽골·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억8000만 달러로 2017년에 비해 21.3%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신북방 지역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시장성, 물류여건, 주 소비층을 고

려해 시장 맞춤형 유망품목을 발굴 지원하고 신북방 지역 주력 수출품목 생산기업의 신규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스크바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 가공식품인 인삼 제품을 집중 육성하고 향만물류가 가능한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 등 신선농산물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개척 역량을 가진 선도기업의 파워브랜드와 유망 중소기업 제품 간 브랜드 협력을 추진하고 중견기업이 이미 진출한 현지 유통망에 중소기업 제품 동반관측 및 공동마케팅으로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유라시아 케이푸드(K-Food) 대장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학생, 수출업체, 마케팅 전문가, 식문화 전문가, 셰프 등으로 ‘케이푸드(K-Food) 홍보원정대’를 구성해 시베리아철도(TSR) 노선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식문화 이벤트를 행사도 진행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 향상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공동기획: 농림축산식품부·이투데이

주요 국가별 농축산물 수출액 (단위: 억 달러)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식품 FTA 특혜관세 활용률 55%... 활용도 높여야

한국 농식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비율은 낮다. FTA가 발효되면 체결국 상호 간에 부과되는 관세가 점점 더 낮아져 FTA 활용률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독 농식품 수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농식품 분야는 FTA의 피해 산업이라는 인식도 강해 수출 업체들의 관심이 낮고, 농산물 가공식품 특성상 다양한 원료가 투입돼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다, 수출 인력은 물론 원산지 규정에 대한

### aT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모집 지난해 80개 기업 관세 22억 절감 “FTA 전문가 양성·고용 대책 시급”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출농단지·수출업체·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농산물 수출에 특화된 FTA 전문가를 양성·고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FTA 활용 지원책을 마련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은 나름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2014년 23%에 불과했던 농림수산물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5%까지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전체 산업 평균 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이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숙제다.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 사업’이다. 매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올해에도 11월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지난해 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농식품 기업은 약 22억 원의 관세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수입 과일 전문점 ‘클레버 후르츠’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배.

를 줄일 수 있었다.

aT는 FTA 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참여업체에 업체별 특화된 맞춤형 FTA 전문컨설팅,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원산

지확인서 발급,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시스템 활용 및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과 매칭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을 기업별 수출역량 수준과 상황에 맞게 A형 ‘FTA 종합컨설팅’과 B형 ‘FTA디딤돌컨설팅’으로 나눠 최대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A유형은 올해 농식품 수출 또는 예정기업, B유형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신현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 여건이 좋지 않으나, 맞춤형 FTA지원사업으로 관세 절감 혜택을 최대화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아파트 단지에 ‘스카이 브리지’ ... 삶을 짓듯, 집을 짓죠”

**W 기획 인터뷰** 이 시 은 삼성물산 건축토목사업부 상품디자인그룹 수석

획일적인 직사각형 아파트를 당연시하던 20년 전 시절, 콘크리트 건축물에 ‘이름’을 붙여준 단지가 등장했다.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의 시작이다. 브랜드 론칭 당시에는 다소 낯설게 들렸던 래미안이란 이름에는 미래(來)와 아름다움(美), 편안함(安)이라는 가치를 담았다.

이후 아파트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집의 개념에서 심미적인 디자인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 배치, 안전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과 주거 단지 조성으로 완전히 변모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고유한 명칭의 아파트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였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래미안은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9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22년 연속(구 삼성아파트 포함),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BCI) 17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5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그 중심에는 래미안에 디자인 철학을 입힌 이시은 삼성물산 건축토목사업부 상품디자인그룹 수석이 자리한다.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1993년도에 졸업하고 설계사무소에 들어갔어요. 삶의 공간을 다루는 주거설계 업무를 보다가 2005년 삼성물산에 입사하게 됐지요. 입사 후에는 주택 설계와 익스테리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상품기획과 설계업무의 리더를 맡았습니다.”

건축사인 그가 중시하는 가치는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짓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실제 입주민과 주부들에게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 과정에 반영한다.

이 수석은 처음 봤을 때 화려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 함께 나이 들면서 매력어 깊어지는 공간을 추구한다. 수많은 수상 실적은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줬다.

“독일의 레드닷(Red Dot)과 iF(International Forum), 미국 국제디자인공

**입주민·주부 의견 디자인 반영  
용산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에  
공중통로 만들어 주민카페 활용  
주거상품 디자인은 ‘종합예술’  
풍요롭고 편안한 삶의 공간 추구  
다양한 분야 관심·건축 열정 중요**



모전(IDEA) 등 국내외 우수 어워드 수상 실적만 150건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굿디자인(GD) 국무총리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우수 디자이너 선정 등의 영예를 안기도 했지요.

2015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래미안 첼리투스는 당시 아파트에 적용하지 않았던 과감한 커튼월과 스카이 브리지를 시도했어요. 한강뷰가 보이는 스카이 브리지에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민 카페를 계획했습니다.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특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만족을 느낀 대목이지요.”

이 수석은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내공에 가용한 모든 아이디어를 더해 회사가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입찰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단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이끄는 반포3주구(재건축 단지명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 수주 프로젝트팀이 총집결했다. 수주에 성공하면 반포3주구를 강남권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따내며 5년 만에 정비사업 시장에 화려한 복귀를 알린 바 있다. 신반포15차에 이어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강남 래미안’이라는 공식을 명실공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회사는 반포3주구 현장에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의 설계와 디자인을 관할할 수 있는 홍보관을 개장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명의 직원이 수주 프로젝트에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는 보석 같은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요. 디자인은 특별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공간에서 경험하는 시간까지도 추억으로 깃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같이 섬세한 아이디어가 삼성맨으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상생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디자

인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게 래미안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여성으로 느끼는 한계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도 했다.

“주거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업무이다 보니 생활을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디자인을 늘 고민합니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좋은 상품과 디자인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디자인 부서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은 조직이라서 리더로서 직원들과 소통할 때도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해요. 이런 것들이 여

성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건축가는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다. 알바로 시자의 건축물은 간결하고 심플한 형태로 유명하다. 건물의 본질을 살리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자신이 맡은 임무 역시 주거의 본질을 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한다. 이 수석은 지금의 부서 후배들과 입사에 도전하는 디자인 학도들에게 전할 조언도 잊지 않았다.

“주거상품 디자인 업무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상품을 기획하고, 주거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전시회도 많이 가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트렌드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거상품을 기획하려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필요하겠죠.

상품디자인 부서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건축사, 시공이나 구조기술사, 컬러리스트 등이 있겠지요. 건축사는 건축 계획안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이라서 아파트의 평면과 전체 동 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때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의 입면 컬러는 더 다채로워지고 있어 아파트 전체의 느낌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가구 내부의 전기제품이나 조명 디자인 등에도 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조나 시공 기술사가 있다면 디자인 단계에서 미리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상품에 대한 관심과 열정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필 기자 roman@사진제공 삼성물산

www.kwnews.co.kr

**江原日報 - NAVER**

## 강원일보는 독자를 섬깁니다.

- 24시간 뉴스 서비스 체제 구축**
  - 네이버 뉴스콘텐츠,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속보 및 뉴스 세계 타전
- 강원일보 TV채널 가동**
  -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동영상뉴스, 유튜브 실시간 전달
- 본문 활자체 전국 최대로 개편**
  - 독자중심, 판형 도내 유일 대판 제작
- 위라벨시대 금요일자 32면 증면**
  - 주5일제에 맞춰 레저 축제 여행 건강 등 다양한 섹션 제공
- 강원도내 유일의 운전기 보유**
  - 전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편집, 신속 보도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오늘의 승리팀은 어디?! 쏠픽에서 승리팀을 뽑아주세요!

승리팀을 Pick하면  
매월 최대 500만P가 쌓인다



손 안의 야구놀이터  
**쏠야구**

검색창에 **쏠야구** 를 검색하세요!



승부예측 쏠픽

## 야구 즐기는 재미가 쑥쑥! 마이신한포인트도 쏠쏠! 쏠픽(SOL Pick)!

매일매일 승리팀 맞히고 매월 500만원에 도전하라!  
승리팀 맞히면 매월 최대 5백만P, 승부예측 참여만 해도 매일 최대 1천P

쏠야구 경로

1. '신한 SOL'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라이프X플랫폼 ▶ 야구
2. QR코드로 접속



쏠야구 바로가기

월간1위	현금 5백만원 ※ 동점시 균등배분	1명
월간2~20위	마이신한포인트 5만원	19명
월간21~100위	마이신한포인트 1만원	80명
참여자	마이신한포인트 3~1,000P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계 2020-10563-1 (유효기간 2020.05.21~2020.06.30) ※쏠픽(SOL PICK)이란 신한 SOL, 쏠야구에서 KBO리그 '승리팀 맞히기'와 '1:10 퀴즈'를 통해 점수 획득하면 월간 누적 점수 상위 100명 대상 경품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참여만 해도 100%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3~1,000P 지급) ※이벤트 기간은 2020 KBO 정규시즌 종료시까지이며, KBO리그경기 당일 00시~첫경기 시작 10분전까지 유효합니다. ※1등(현금 500만원) 경품 당첨자는 우선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며, 그 외 당첨자는 마케팅등의 대상자에 한하여 LMS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기타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쏠픽(SOL PICK) 이벤트 페이지 및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원자재 공수, 제조기업 생산 지원



삼성사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해외 지사와 법

인을 활용해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지에서 마스크 28만4000장을 긴급 확보했으며 이를 수입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지역에 기부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중국의 한 반도체 고객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보내온 마스크 5만 장을 대구광역시사회에 재기증했다.

삼성사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구매 대행에도 나



섰다. 삼성은 이미 도입이 확정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53톤 이외에 추가 물량을 구매 대행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E&W(경기 안성시)', '에버그린(경기 안양시)', '레스텍(대전 유성구)' 등 3개 마스크 제조기업들에 제조전문가 37명을 파견해 기술지원을 시작해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이 밖에 삼성은 △손 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 격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세트 등의 구호 물품과 구호 성금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바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화훼 농가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섰다.

## 임직원 '나눔 프로젝트' 5억5900만원 기부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 기부 캠페인 '나눔 프로젝트'에 나서 총 5억5900만 원을 구호재단에 전달했다. 앞서 2월에는 현대차그룹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5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바 있다. 그룹 차원의 지원에 이어 임직원 개개인도 자발적인 나눔에 나섰다.

시작은 작은 제안에서 출발했다. 3월 한 직원이 내부 소통 채널에 "그룹 차원의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임직원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하자"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사내에 무인 기부 단말기 설치와 사회복지재단 '해피빈'과 연계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마련했다. 사측도 임직원과 뜻을 함께하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했다.

현대차 노동조합도 조합원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 프로젝트'에 의기 투합했다.

3~4월 이어진 '나눔 프로젝트'에 노동조합을 포함해 현대·기아차 임직원들은 총 2억7900만 원을 모았다. 여기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의 '매칭펀드'로 힘을 보태 총 기부액으로 5억5900만 원을 채웠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기부금을 사회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희망진구 기아대책'에 각각 전달했다.

## 착한 소비·기부 연계 '행복크레딧' 론칭



SK그룹은 '착하게 돈 벌기'를 모토로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19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2020 ICT 꿈나무 사업' 협약을 맺고 ICT 취약계층 아동들의 IT 기기 구매와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 폭넓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중고폰 매입기 '민트 ATM'을 통해 작년 1월 한 달간 기부 중고폰 1대당 1만 원 추가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2500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에이프리트론 a20' 제품의 세이브더칠드런 에디션도 2000개 출시해 완판했다. 이를 기념해 최근 2000만 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키트 4000개를 기부했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착한 소비'와 기부를 연계한 '행복크레딧' 프로그램을 새롭게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이 11번가나 SK스토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인 상품을 구매하면 SK텔레콤이 고객의 결제액에 따라 기부 전용 포인트를 적립, 누적된 포인트를 연말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기부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작년 총 4만3685명의 고객(총 기부금 5억7548만 원)이 참여했다.

## '의인상' 일반 시민으로 확대... 121명 시상



LG 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5년 9월 첫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121명의 의인이 LG 의인상을 받았다. 작년부터는 수상 범위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선행과 봉사를 한 시민에게까지 확대했다.

의인들은 소방관 14명, 해양경찰 10명, 경찰 10명, 군인 11명 등 제복 의인부터 우리 사회 평범한 이웃도 있다. 95세 고령에도 33년째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해 온 정희일 할머니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피해 창문에 매달려 있던 이웃을 구조한 양만열씨 등이 대표적이다.

LG는 LG 의인상 외에도 우리 사회 귀감이 된 의인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2015년 8월에는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2명의 군 장병에게 각각 5억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2014년에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사고 현장의 지원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의 유가족에게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위로금을 전했다. 앞서 2013년 4월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하려다 희생된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고(故) 정옥성 경감 유가족에게 5억 원의 위로금과 자녀 3명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도 했다.

## '소방관 노고 덜자' 방화복 세탁기 기증



LG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 방화복 세탁기를 기증하고 있다.

2017년 LG전자가 선보인 방화복 세탁기에는 방화복 전용 세탁 코스가 있다. 일반 세탁기에서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빨래에 가해지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훼손되어 별도 코스를 개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인정시험과 제품검사를 통과해 'KFI 인증'도 획득했다.

LG전자는 방화복 세탁기를 2018년 인천소방본부에 20대 기부했다. 작년에도 강원 지역 산불을 진화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에 20대 기증했다. 작년 7월에는 스페인 스타트업과 함께 대형 산불로 많은 나무가 타버린 스페



인 과달리하라주의 알토 타호 자연공원에 약 200만 개의 나무 씨앗을 심었다.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LG전자 제품도 활용됐다. 스마트폰 LG G8 씽큐가 촬영한 데이터를 LG 그래프 노트북으로 분석해 씨앗을 퍼뜨릴 최적의 위치와 씨앗의 종류를 정한 후 LG G8 씽큐로 드론을 조종해 공원 내 씨앗을 뿌렸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서비스인재 양성을 위해 'LG-코이카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설립했다. LG전자는 매년 최우수 학생 2명을 취업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올해 2월에는 우수 학생 7명의 두바이 해외연수를 지원했다.

## 아동 3000명에 'LS@HOME 박스' 선물



LS그룹은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LS 대학생해외봉사단'과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일시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언택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구미, 동해, 부산, 안양, 울산, 인천, 전주, 청주, 천안 등 전국의 9개 지역 아동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놀이 키트와 함께 마스크, 식료품 등이 담긴 'LS@HOME 박스'를 제공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 응원에 나섰다.

이에 LS는 '태양광으로 나는 비행기', '장애물을 인지하는 자동차', '온도차에 움직이는 회전목마' 등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놀이 키트와 설명 책자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속 이벤트와 멘토링 등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S@HOME 박스에는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과 햇반, 라면, 참치, 음료 등 다양한 식료품까지 포함돼 실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언택트' 방식을 통해 과학놀이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LS그룹은 올해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 원을 기탁하고,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 차원에서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억 원으로 기탁했다.

## 영세 협력업체 매장 관리비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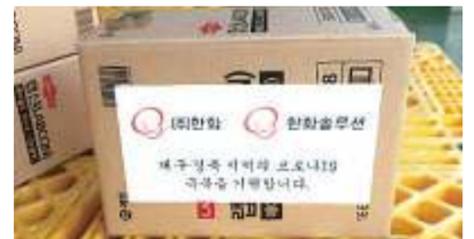
한화그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종 기부와 시설 제공,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월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5만 장을 기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됐다.

한화도탈은 충남 서산시에 마스크 1만 장, 방진복 2400벌, 손 소독제 2000여 개 등 방역용품을 기부했다. 방역물품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0.5%를 기부했다. 회사는 매칭 그랜트 기금 0.5%를 더했다.

한화생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약자와 용자



대출 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2000명 재무설계사(FP) 가정에 마스크와 생필품 등을 응원 메시지와 함께 택배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118개 식음료 업체의 매장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영세 협력업체 외에도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매출 감소 폭에 비례한 수수료 인하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갤러리아에서 전액 부담했다.

## 코로나 위기 극복에 10억 성금 기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GS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

2월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서 허태수 GS 회장은 “앞으로도 GS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 재난 취약계층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GS 계열사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GS칼텍스의 임원진은 3월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2억 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의 상공인(카센터)에게 회사 운할용 제품 1만 박스 총 6억 원어치를 무상 지원했으며 간호인을 위해 대

한간호협회에 엔진오일 무료 교환 쿠폰 1000개를 전달해 정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GS건설도 3월 구미 환경사업 현장에서 구미시에 방진마스크 등 비상용품 50상자를 기부했고, 이달 부산 토목사업 현장에서는 부산시 연제구에 면마스크 2000장을 기부했다. GS리테일은 1월 코로나19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에게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GS홈쇼핑 또한 1월 마스크 30만 매를 기증했다. GS홈쇼핑이 기증한 마스크 30만 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 및 노인 약 1만 명에게 전달됐다.

## ‘주니어공학교실’ 3년간 초등생 3만명 참여



현대모비스는 사업의 강점과 상징성을 반영한 나눔경영을 펼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이 직접 초등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 공학 교실의 교보재로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미니카’와 기술연구소 참여로 개발한 ‘차선을 따라가는 스마트카’ 등이 사용된다. 올해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활용한 ‘수소전기차’ 교재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최근 3년간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 교실에는 120개 초등학교 3만여 명의 학생들과 12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정규 수업 외에도 과학버스가 학교를 ‘찾아가는 공학교실’, 고등학생들에게 모형 자율주행차 제작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공학 리더’, 모터쇼 등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공학교실’ 등을 운



영 중이다.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 교실은 중국과 독일에서도 운영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400여 개 교육기관의 어린이 90만 명에게 투명우산을 무료로 나눠 줬고, 올해 누적 100만 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투명우산은 투명 캔버스와 빛 반사 소재를 사용해 사용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돕는다. 호루라기로 위급 상황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 협력사 생산성 혁신 위한 ‘상생 교육’



두산그룹은 협력사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상생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두산은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협력사를 위해 생산성 혁신, 노무, 법무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상생 격려금 및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생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전체 협력사 540여 곳 가운데 26개 협력사를 선정해 강소기



업으로 육성하는 ‘리딩 서플라이어’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내 전문가 및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경쟁력강화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품질·납기·원가 개선 등 혁신 기법을 전수한다.

두산중공업은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기업 인증 트로피를 받았다.

## 지역 초중생 대상 ‘교과 연계’ 화학캠프 운영



LG화학은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해 청소년 교육과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나눔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LG화학은 특히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사회공헌 추진 방향 아래 ‘화학놀이터’, ‘화학캠프’ 등 사업장 인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지원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 놀이터’는 초·중·고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재미있는 화학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다.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는 2005년부터 총 60여 차례 전국 사업장 인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펼치는 LG화학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7200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캠프에 참가했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신학철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임직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밤섬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실시했다.

LG화학은 ‘울은 미래, LG화학이 그리는 그린(Green) 세상’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임직원 봉사단 ‘그린 메이커(Green Maker)’를 출범하고 매해 4차례에 걸쳐 밤섬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마음톡톡’ 사업 전개



GS칼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 심리·정서 치유 ‘마음톡톡’이 대표 사업이다. 청소년들에게 집단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돕는 내용이다. 작년 7년간 전국에서 총 1만800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치유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GS칼텍스재단을 통해 여수문화예술공원인 ‘GS칼텍스 예술마루’ 조성 및 운영사업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는 여수시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1100억 원을 투자해 만든 복합문화 예술공간이다. 예술마루가 자체 기획하는 공연과 전시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다문화가족 등



문화 소외계층을 초대하고 있다. 작년까지 1156회의 공연에 관람객 59만6000여 명이 찾았다. 90건의 전시에도 관람객 27만4000여 명이 방문했다. 작년 5월에는 ‘GS칼텍스 예술마루 예술의심 장도’도 개관했다. 시민과 예술가들의 참여로 채우는 섬이다. 전시실, 카페, 교육실 등으로 구성됐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존립을 위해 여수시의 출산 장려사업도 지원한다. 임신 6개월~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 교구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 코로나 현장에 구호성금·의료용품 전달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억 원을 전달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구호 현장 의료진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용 장갑 5만 켤레와 손소독제 3000개 등 긴급 의료용품도 지원했다.

효성 전주공장은 3월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양공장 역시 4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양교도소에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원단을 기증했다. 기증된 원단은 효성 크레오라 스판덱스 등으로 만든 기능성 소재로 안양교도소 수형자들이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원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아울러 효성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효성은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등 국내 사업장이 인근 지역에 ‘사랑의 쌀’과 김장김치, 생필품 등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사랑의 김장김치’ 역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6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의 자활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울산중구시니어클럽 전문음식사업단’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은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를 후원한다.

## 전 임직원 아동센터 봉사 등 사회공헌 참여



코오롱그룹은 사회공헌을 최우선의 경영이념으로 여겨 전 임직원에게 ‘나눔’을 강조한다.

코오롱그룹은 2012년 사회공헌을 전담하는 조직인 ‘CSR사무국’을 발족했고, ‘꿈을 향한 디딤돌, 드림 파트너스(Dream Partners)’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코오롱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코오롱 헬로 드림(KOLON Hello Dream)’은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의 비전 성취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1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전국 4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봉사에 참여했다. ‘비전드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드림’과 ‘건강드림’으로 문화·체육활동, 친환경 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오롱사회봉사단은 △드림백 기부 캠페인 △



드림 파트너스 워크(Dream Partners Week) △헌혈하고 휴가 가세요(송년회하세요) △꿈을 향한 삼남길 트레킹 등 4대 이벤트도 진행한다.

드림백 기부 캠페인은 매년 초 코오롱 신입사원이 직접 방한용품, 학습품 등을 담은 드림백을 제작해 전국 40여 개 아동센터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매년 5월 열리는 드림 파트너스 워크에는 전 임직원이 다양한 테마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헌혈하고 휴가 가세요(송년회하세요) 활동은 혈액 수급이 감소하는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진행된다.

## 대구·경북에 '생필품 키트' 2만개 기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피앤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소비자와 임직원에게 선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활용품의 수요가 더욱 높

아진 만큼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한편, 국내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특히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손잡고 휴원과 개학 연기로 가정양육에 대한 부담



이 커진 한부모 가정과 한부모 모자 시설 어린이들을 지원했다. 총 3000만 원 상당의 다양한 실내 교구재가 들어있는 놀이키트를 제작·기부해 길어지

는 실내 생활에 지친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줬다. 이와 함께 P&G의 구강 위생용품 브랜드 오랄비의 어린이 칫솔 등의 필수 위생관리 제품 기부를 통해 생활용품에 대한 부담도 덜어 준다.

3월에는 코로나 19 피해로 경제활동 등에 난항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 소외계층과 의료진을 위해 2만여 개 생필품 키트를 기부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 아직 심각 단계에 있는 지역들에 생필품과 기부금 전달 및 필수 위생용품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친환경 녹색기술' 제품에 사회적 가치 담아



동아제약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어린이 영양제품 '미니맥스 정글'은 최소한의 변화로 최대의 효과를 만드는 동아제약 어린이건강연구센터의 제조 원칙과 소비자 보호, 환경을 중시하는 동아제약의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및 국민건강 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되는 영양성분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영양소만을 선별해 담았다. 합성착향료, 합성색소, 합성감미료 등 화학적 첨가물을 최소화했으며, 세계적인 품질의 원료를 사용해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미니맥스 정글 패키지는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다. 재활용된 펄프 용기를 사용해



분리배출이 용이하다.

또한 피부 고민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맞춤형 마스크팩 '이지 솔루션 마스크' 라인을 발매했는데, 이 제품은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마스크 시트를 사용해 환경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번 박스 광고 '회복' 편에서는 환경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회복 편에는 바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피로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부부 이야기를 담았다.

## 매년 백혈병소아암 환자 1000여명 지원



농심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가족들 돕기에 나섰다. 농심은 매년 백혈병소아암 진단을 받는 1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심은 3월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은 소아용 마스크 2100여 장을 백혈병소아암 환아를 위해 내놓았다. 환아들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져 평소 생활에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심 관계자는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임직원들 사이에서 마스크가 꼭 필요한 환아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의견이 나와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은 이달부터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생일과 제2의 생일이라 불리는 골수 이식기념일에 맞춰 선물을



전달하는 '심심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심심키트에는 환아의 나이와 성별, 개인적 취향을 고려해 장난감, 도서, 생필품 등 다양한 선물이 담긴다. 심심키트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전국 160여 명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대해 관심이 높아 사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환아부터 완치자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주문진 전통시장에 14번째 '상생스토어'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 시장 활성화에 앞장 서고 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14호점을 주문진 수산시장 내 건물 1층에 237㎡(약 70평) 규모로 21일 오픈했다. 상생스토어에는 바로 옆에 고객 휴식공간인 '&라운지'가 155㎡(약 47평) 규모로, 2층에는 어린이 교구 및 수유실이 갖춰진 '키즈라이브러리'가 99㎡(약 30평) 규모로 들어섰다.

주문진 수산시장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원도 대표 수산시장으로 이마트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통해 수산시장을 윈스톱 쇼핑이 가능하게 탈바꿈시켜 관광객 쇼핑 편의를 높인다.

이울러 특색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마차 8대의 운영을 지원해 시장에 다양한 먹거리를 새롭게 선보이며, 키즈라이브러리 설치를 통해 관광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객 휴식 공간인 '&라운지'에는 청년마차 8대가 들어서 커피, 과일주스, 오징어튀김, 닭강정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수산물 일색이던 시장의 먹거리 선택지를 넓혔다.

이마트는 청년마차를 운영하는 청년상인에게 집기, 인테리어, 운영 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라운지'를 운영공간으로 제공해 날씨나 계절에 관계 없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다.

## 독거노인 1500명에게 '플레저박스' 전달



롯데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지주는 지난달 23일 롯데복지재단과 함께 전국 독거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 2013년부터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해 온 롯데지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봄 사각지대에 처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마스크 및 비누, 생필품, 레토르트식품 등 16종을 롯데 플레저박스에 담았다. 운송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지원했다.

롯데홈쇼핑도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가정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



다. 롯데홈쇼핑은 3월에는 영등포 지역 소외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손 세정제와 즉석국 등 간편식품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키트를 직접 제작해 전달한 바 있다.

롯데는 코로나19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돼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돕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은 지난달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위생·방역 담당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남대문 꽃시장에서 구매한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 中企 살리는 '즐거운 동행' 매출 100억 돌파



CJ올리브영의 꾸준한 중소기업 상생 마케팅이 빛을 발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최근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즐거운 동행'의 누적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즐거운 동행'은 CJ올리브영이 유망한 신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전개해 온 업계 대표 상생 프로그램이다.

CJ올리브영은 판로 지원뿐 아니라 우수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소 협력사에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하반기에 각각 상품전을 개최하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즐거운 동행' 발굴 브랜드와 협업한 프로모션도 전개했다.

현재까지 '즐거운 동행'을 통해 발굴한 브랜드는 70여 개, 취급 상품 수는 600여 개에 달한다. 2016년



7개에 불과했던 입점 브랜드는 지난해에만 30개가 새롭게 추가됐다. 7월에도 10여 개의 신규 브랜드가 입점을 앞두고 있어 브랜드 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즐거운 동행'을 통한 대표적인 성장 사례는 랩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임프롬'이다. 2017년 7월 '즐거운 동행'을 통해 올리브영에 입점한 '아임프롬'은 자연 성분을 내세운 클린뷰티 제품으로 지난해 18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스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 환자들에 '희망' 선사



중근당이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신약 개발은 물론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후원으로 꾸준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근당은 2011년부터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 이야기 콘서트'와 환아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61회의 오페라 콘서트와 188회의 키즈 오페라 공연이 이뤄졌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병원 로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한 오페라 속 아리아와 영화 OST, 뮤지컬 등 친숙한 음악들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키즈 오페라는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뿐 아니라 유명한 클래식, 힙합 느낌의 창작곡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투



병에 지친 어린이들의 감성을 치유하는 맞춤형 공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중근당의 남다른 행보는 2012년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하나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제약업계 최초로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중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선정된 작가들은 매년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받고,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 개최 기회가 주어진다.

### ‘푸드뱅크 식품기부’ 소외이웃 결식 해소



대상은 결식 계층을 위한 푸드뱅크 식품기부를 비롯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긴급재난 구호,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하고 있다.

특히 1998년 푸드뱅크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당시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대상이 선도한 식품기부는 다른 식품기업의 여유식품 기부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소외된 이웃들의 결식 완화에 기여해왔다.

대상은 2006년 사회공헌팀을 신설해 여유식품 기부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를 전사적으로 전개해왔다. 또한, 결식 완화를 위한 여유식품 기부의 필요성과 효과를 제시하며 많은 기업들이 식품기부 사업



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상은 푸드뱅크 기부 외에도 청정원 봉사단 운영, 여성 및 아동지원사업, 고객참여형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상의 사회공헌활동 근간은 임직원들로 구성된 청정원 봉사단이다. 전사적으로 79개 청정원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87개 시설에서 매월 1회 이상씩 평일 근무시간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긴급 돌봄 아동에 비대면 ICT 체험 교육



KT는 전국 31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ICT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ICT 체험 교육은 KT의 화상 회의 시스템인 ‘KT 화상회의 2.0’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다. KT는 온라인 개학으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 교육을 마련했다.

KT는 ‘ICT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AR로 아동센터에 동물 기르기’, ‘VR 콘텐츠 제작하기’, ‘1인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등 IT 기술을 활용한 놀이 형태의 체험 교육 중심이다.

KT는 4월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을 통해 전국 긴급 돌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신청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98회의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온라인 개학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비대면 ICT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KT IT서포터즈 선생님의 원격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체험키트를 이용해 직접 결과물을 만든다. 수업 중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 ‘빵그레’ 통해 저소득 청년 자립 기반 마련



하이트진로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에 조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2012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본격화해왔다.

하이트진로는 창원지역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남동발전, 창원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청년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를 정식 오픈했다.

‘빵그레’는 창원지역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지원자를 선발해 제빵관련



기술을 교육, 일정 기간 직접 카페 운영 경험을 쌓고,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이트진로는 ‘빵그레’ 공간을 10년간 무상 임대하고, 운영이 안정화되는 6개월간 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재료 구입과 빵 운반에 필요한 차량도 함께 제공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 해피스크린 앱으로 고객과 코로나 피해 지원



SPC그룹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온라인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모바일 앱 ‘해피스크린’을 활용한 ‘해피나눔 캠페인’, 응원 댓글과 SNS 공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SPC 해피케어 캠페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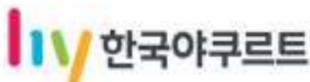
‘해피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SPC그룹의 마케팅플랫폼 계열사 SPC클라우드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SPC클라우드가 개발한 잠금화면 리워드 앱 ‘해피스크린’을 통해 진행된다. 해피스크린은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광고를 보면, 전국의 파리바게뜨, 배스빈라빈스, 단킨도너츠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를 제공하는 앱이다.

‘해피나눔 캠페인’의 첫 행사인 ‘웃음꽃 봉인해제 챌린지’는 해피스크린 앱 설치 후, ‘설정’ 메뉴에서 ‘적립포인트 기부하기’를 선택하면 매 잠금 해제 시 적립되는 해피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프레시 매니저, 홀몸어르신 찾아 건강 관리



홀몸노인돌봄활동은 한국야쿠르트가 1994년부터 펼쳐온 사회공헌활동이다. 26년간 지자체, 관공서 등 여러 기관과 손잡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대표 민관 협력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활동은 전국 1만1000여 명의 프레시 매니저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하다. 프레시 매니저들은 매일 발효유를 전달하며 홀로 지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홀몸노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주민센터와 119 긴급신고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돕는다.

실제로 프레시 매니저가 고독사를 발견한 사례도 많다. 서울 한남동 일대를 관할하는 전세옥 프레시



매니저는 한 독거노인을 세 번 구했다. 전 씨는 2008년 12월 홀로 사는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채 집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구급대를 불러 구조했다. 2009년 6월과 2010년 2월에도 호흡 곤란 상태에 있는 동일인을 119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조대원은 “호흡 곤란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신고가 접수됐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어린이 도서 기증 등 문화·예술 나눔활동



동서식품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삶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뿌리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프로바둑대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국내 최대 여성 신인문학 상으로 자리매김한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등은 동서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손꼽힌다.

동서식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동서식품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생각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를 기증하고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해까지 충북 진천 상산초등학교와 인천 부평동



초등학교, 창원 명도초등학교 등을 수혜처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올해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 서원초등학교를 수혜처로 선정하고 도서 2500여 권을 구매해 기증하는 한편, 서가를 추가로 구축했다.

이규진 동서식품 CSR 담당자는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향긋한 커피 한 잔과 어울리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예술인 지원...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



대림산업은 ‘한숲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 철학인 한숲정신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림산업은 5대 나눔사업으로 문화와 행복, 사랑, 맑음, 소망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화나눔은 미술관을 통해 대중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현대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젊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개관한 대림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지금은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소개하며 서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행복나눔은 임직원이 직접 소외계층의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활동으로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손잡고 서울과 수도권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복지단체시설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집 고치기 활동은 그룹 내에서 건설 계열사인 고려개발과 상호, 대림코퍼레이션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 16년째 ‘지속 가능한 행복 만들기’ 앞장



SK건설이 ‘지속 가능한 행복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SK건설 자원 봉사단은 2004년 발족 후 올해로 활동 16년째를 맞았다. 그간 사회복지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손잡고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 사회에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다.

지속 가능한 행복 만들기의 핵심은 봉사를 통한 양극화 완화다. ‘희망 메이커’는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결연(結連)해 이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부터 전국 아동·청소년 600여 명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로 매달 10만 원씩 지원했다. 정기 기부금 외에도 명절과 어린이날, 겨



울절엔 특별 선물도 빼놓지 않는다. 후원금은 SK건설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지원금을 1대 1로 적립해 마련하고 있다.

SK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살린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한 달에 1~2회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 계층을 찾아 집을 고쳐주는 활동이다.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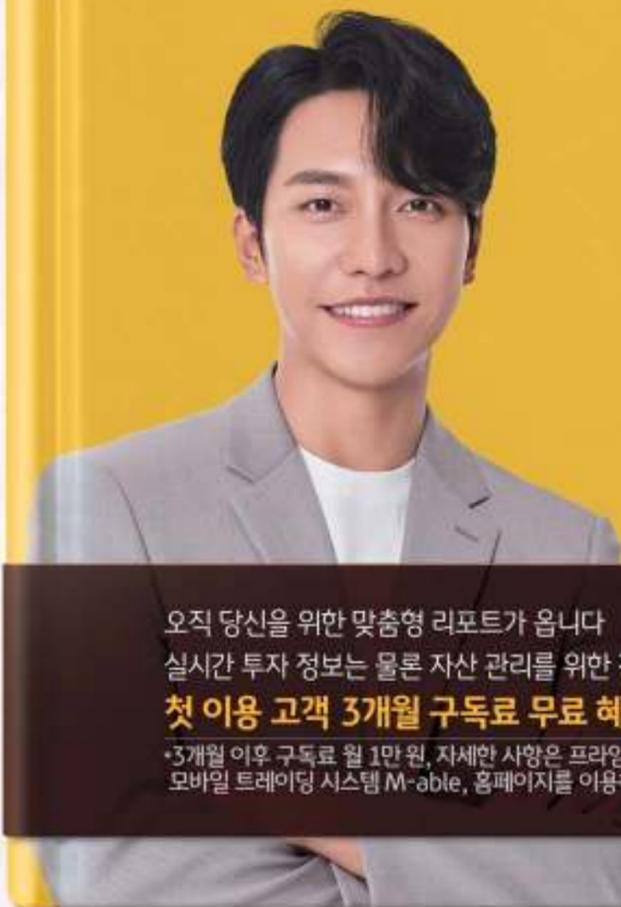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반도체 무역의 처음과 끝, 우리가 책임진다”

## SK하이닉스, 관세선 지키는 ‘인프라 통관팀’

### 원·부자재 수입부터 제조·가공된 완제품 수출까지 총괄 관련 법안 수시 파악해야...2011·16년 관세청 AAA등급

“통관팀을 ‘관세선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표현하고 싶다. 관세선을 넘나들며 불공정 무역을 막고, 관련 법규를 지켜 정확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중운 SK하이닉스 팀장)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출입통관 업무가 그중 하나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해외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일이다. 수출입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수록 반도체 가치는 배가된다.

반도체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업무를 SK하이닉스에서는 ‘인프라(Infra) 구매담당 통관팀’이 담당한다.

통관팀은 제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박중준 TL(테크니컬 리더)은 “통상 관련 법은 무역 트렌드에 따라 수시로 개정된다. 개정된 법과 규정 등을 수시로 습득해야 한다”며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활동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TL은 “국가로부터 통관과 관련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결국 과세 관청은 사후심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고지한다”며 “이로 인해 항상 꼼꼼하게 관심을 두고 업무에 임한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신속한 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수출통관 체계’가 있



왼쪽부터 SK하이닉스 인프라 구매담당 통관팀 정중운 팀장, 박중준 TL, 김재현 TL.

다. SK하이닉스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에 즉시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휴일 및 야간에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집에서 업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런 업무체계를 모든 업체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2011년, 2016년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받은 바 있다.

통관팀의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 덕분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TL은 “월말에는 항상 주말에도 일해야 돼 힘들 때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 업무로 인해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고객의 손으로 무사히 전달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NYT 1면의 이름들...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추모 1천명 신고 “이들은 우리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신문 1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들의 이름과 짧은 부고로 가득 채워 이목을 끌었다. <사진>

NYT가 트위터를 통해 먼저 공개한 24일(현지시간) 일요일판 신문 1면에는 ‘미국 사망자 10만명 육박, 막대한 손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1000명의 미국인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이름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다. NYT는 해당 기사에서 “단순히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였다”며 사망자를 추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 그래픽 없이 희생자들의 부고로 1면을 촘촘히 채운 것이다. NYT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국인 사망자의 약 1%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선정했다. 단순히 이름뿐만 아니라 ‘알란 룬드(81·워싱턴), 놀라운 귀를 가진 지휘자’, ‘테레사 엘로이(63·뉴올리언스), 디테일한 꽃장식으로 유명한 사업가’ 등의 방식으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짧막하게 소개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삼성SDI 이성재 프로, 코로나19에도 빛난 ‘부부의 세계’

### 간호장교 아내 대구로 보내...완벽하진 않지만 엄마 빈자리 묵묵히 채워

삼성SDI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사내 소통채널 ‘SDI 톡’에 이성재(사진 왼쪽) 프로의 사연을 소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형전지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 프로는 아내 이쁘니(오른쪽) 소령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 평소에도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며 천안과 대전을 오간 이 소령은 3월 20일 대구 동산의료원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지원을 명받아 4주간 파견을 가게 됐다.

이 소령은 처음 의료지원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나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

때 이 프로는 아내를 격려했고,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이 소령은 대구로 떠날 수 있었다. 아내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이 프로는 회사와 집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회사에서 배터리의 품질 개선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이 프로는 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이 연초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가 혼자서 3명의 몫을 해내야 했다. 이 프로는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지만, 아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힘을 냈다. 회사 역시 이러한 이 프로의 상황을 알고 아내의 파견 기간 이 프로의 업무를 조정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곳곳하게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가던 이 프로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아내가 파견 근무 2주쯤 지났을 무렵, 4살배기 둘째가 새벽에 자다 깨서 엄마를 찾으며 영영 울기 시작했다. 당시 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주고 다독이며 겨우 다시 재웠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만으로는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고 느꼈다.

대구에 도착한 아내 이 소령 역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다. 고령 환자가 많은 병동에서 근무를 한 이 소령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 흑여 발생



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항상 대비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이 소령이 파견에서 돌아오던 날, 이 프로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는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스토리는 사내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국군FM라디오에도 소개됐다. 두 사람의 사연을 본 임직원들은 ‘이쁘니 소령님의 사명감과 이성재 프로의 외조로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등 이들 부부를 응원하는 많은 댓글을 남겼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택배상자로 실종아동 찾는다 우정본부 ‘호프 테이프’ 캠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찰청, 한진택배, 제일기획과 25일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장기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호프테이프(Hope Tape)’를 전개한다.

호프테이프 캠페인은 택배상자에 부착하는 밑봉용 테이프에 실종아동의 정보를 담아 택배를 보낼 때 실종아동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종아동을 찾는 캠페인이다.

호프테이프에는 장기 실종아동 28명의 실종 당시 모습, 경찰의 나이변환 몽타주 기술로 제작한 현재 추정 모습,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의 정보가 인쇄돼 있다. 또한 경찰청의 ‘안전Dream앱’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어 실종아동 신고 및 검색,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지역 22곳의 총괄 우체국에 호프테이프를 비치해 택배 이용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프테이프가 부착되는 택배 물량은 한진택배 물량을 포함해 62만 개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훈 기자 yes@

##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로보노 봉사단’ 발족

### 중소벤처와 공생...인사·재무·법률 등 실질적 컨설팅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프로보노(Pro Bono) 봉사단’을 발족해 회사와 중소기업과의 공생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로보노 봉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의 공익을 위해 직무 전문성을 지닌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하는 형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닌 지식과 역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인사, 기획, 재무, 법

률, 마케팅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지원한 21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사회혁신 컨설팅 사회적기업인 ‘상상우리’와 함께 프로보노 봉사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모델 및 수익성·사업 적합성·기대효과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6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 중 자문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구분해 프로보노 봉사단과 매칭할 계획이며, 온라인과 월 1회 이상의 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프로보노 봉사단’ 발족식에 참석한 주시보(왼쪽 열 번째) 대표이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봉사단 간의 교류를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미비점을 찾아 상호 보완해 향후 활동방향을 조정하는 등 프로보노 활동이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임직원은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국정운영실장 윤창렬 ◇실장급 승진 △규제조정실장 박구연 △사회조정실장 장상운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임상준 △일반행정정책관 심중섭 △개발협력정책관 손동균 △국정과정제관리관 남형기 △규제총괄정책관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 김달원 △재정금융기후정책관 이효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송경원 △사회복지정책관 김영수 △공직복무관리관 한경필 △총무기획관 양성호 △정책기획

위원회 파견 정현용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제품안전정책국장 정중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양병내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규봉 △섬유산업진흥과장 김영규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제경희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양기욱 △가스산업과장 김진 △원전수출진흥과장 신성주 △동북아통상과장 정상용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한철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전보 △감사실장 김중호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담당관 이명석 △경영

본부 경영노무처장 신성열 △계약처장 김태은 △건설본부 설계실 토목설계처장 김명규 △기술본부 신호처장 윤학선 △시설본부 시설계획처장 이호룡 △시스템개발처TF장 김동철 △시설종합정보 구축처TF장 한승우 △자산운영단 재산용지처장 이재우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장 양동범 △수도권사업담당 임명규 △호남본부 안전혁신처장 구옥현  
◆서울경제신문 ◇승진 △편집국 온라인 담당 부국장 최형욱 △디지털편집부장 이연선 ◇이동 △편집국 사회부장 김정곤  
◆아이엠비씨 △대표이사 박태경

## 부음

▲이재경(전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씨 별세, 이동희(MBC 크리에이티브센터장) 씨 남편상 = 24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6일 오전 8시, 02-3779-1526  
▲서명순 씨 별세, 김다영(중앙일보 기자)·다설(삼성전자 글로벌EHS센터 사원) 씨 모친상, 최지욱(지음스킨 대표) 씨 빙모상 = 24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31-219-6975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지만 근로장려금은 영세사업자도 수혜 대상으로 하며, 재산·소득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저소득층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경우 초기 인건비 등 창업비가 더 들어 벤처기업 등의 출현을 막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국가 부담이라는 면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큰 재난이며,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의 추경을 통해 22조 원을 풀었다. 주로 국민에게 일 정액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 투입하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향후 기업 살리기를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가급적 재난 경중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여력의 재정은 기업 살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살리기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 이외에도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 육성을 통해 진정한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등 높은 생산비와 노조 등 경직된 노동환경에 있다. 이외에 과중

한 규제와 높은 조세에도 기인한다. 이런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은 어렵다. 재난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기술, 노동,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각종 규제와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은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건비의 경우 기업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보다는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대폭적으로 올렸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2.7%, 독일 3.9%, 일본 6.2%, 영국이 9.2% 각각 인상되었고, 미국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장려

금의 경우에도 2018년에는 1.3조 원이었으나 2019년 4.9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에는 총 국세 감면 43.9조 원 중 11위였지만, 2019년에 총 국세 감면 50.1조 원 중 1위로 경쟁 뛰어올랐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경쟁력보다는 근로복지 측면만을 크게 강조한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추세와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여 근로장려세제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지원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이외에 영세사업자도 수혜 대상으로 하며, 재산·소득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저소득층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억제하면서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면, 국내 근로자는 임금결손 없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경우 초기 인건비 등 창

업비가 더 들어 벤처기업 등의 출현을 막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국가 부담이라는 면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전문직 사업자 혹은 부자집 자녀의 아르바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살리기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금이 기업 부담의 최저임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기업 부담의 인건비를 국가 부담으로 돌림으로써 기업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자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고용이 가능해져 고용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정일의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지난 두 계절 내내 걱정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든 일상을 회복하고자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를 침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몸을 망가뜨리는 측면에서 분명히 침입자이고, 외부로부터 들어와 일상 생활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뜨리고 있는 측면에서도 분명 침입자입니다.

자연 생태계에도 침입자가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들을 '침입외래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관리하는 정부부처인 산림청과 환경부에서도 이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침입외래종'이라고 지칭하며 외부에서 들어와 다른 생물의 서식지를 점유하고 있는

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입외래종은 다시 임시정착식물과 귀화식물로 나누고 총 320종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여 '유입주의 생물' 200종을 지정하고 이를 다시 '생태계 교란 생물' 및 '생태계 위해 우려생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래생물 중 '생태계 교란 생물'은 '외국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생물체 중에서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야생의 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침입종이란 다른 지역에서 진화한 후 새로운 지역으로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옮겨온 생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침입종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겨우 생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물은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북미 북동부 지역에서 나무좀은 물푸레나무를 전

멸시키고 있고 일본매자나무는 숲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이를 접목할 때 튼튼한 뿌리를 이용하려고 도입한 '가시박'이 한강변을 초토화하고 점점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토종 물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는 '큰입배스'와 '황소개구리' 등의 사례가 너무나 잘 알려진 침입종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파랑불우럭 등 수많은 침입종들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침입종의 번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토착종은 그 지역의 환경에 알맞게 적응한 생물들이지만 외래종은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래종이 토착종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200여 년 전인 다윈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분명하게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

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은 바로 인간의 영향으로 파괴된 생태계에서 침입종은 토착종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침입종의 유입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당 부분 인간이 매개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침입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다고 온통 소리 높여 외치고 뭔가 대응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대응 방안을 찾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 노력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괴되고 있는 자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녹음이 한창 질어지는 이 계절, 우리는 침입자로부터 받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왁자지껄하게 뭔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생태계도 조용한 가운데 침입자에 의해 파괴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 줘야 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버트 카파 명언  
"당신의 사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등 다섯 전쟁에서 중군기자로 활동하며 명성을 떨친 전쟁보도 사진가. 본명은 엔드레 에르네 프리에드만. 스페인 내전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는 순간을 근접 촬영한 '황당파 병사의 죽음' 사진은 그의 대표작. 그는 베트남에서 취재 중 지뢰를 밟아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13~1954.

☆ 고사성어 / 숭덕광업(崇德廣業)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힌다는 말이다. 높은 덕과 큰 사업을 뜻한다. 주역 계사 상전(周易 繫辭 上傳)이 원전. 공자(孔子)가 한 말. "무릇 성인도 주역을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히는 도구'로 쓴다[周易聖人所以崇德廣業也]."

☆ 시사상식 / 오팔 세대  
'오팔(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5060세대를 일컫는다. 베이비부머인 1958년생을 뜻하기도 한다. 신중년층은 은퇴 후 새 일자리를 찾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젊은이들처럼 자신을 가꾸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성업 중이다.

☆ 우리말 유래 / 숨바꼭질  
'숨+바꿈+질'에서 왔다. '숨'은 '숨 쉬다'의 '숨'. 숨 쉬는 것을 바꾸는 일이니까 소위 마작질을 말한다. 물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이 물속으로 숨고, 다시 숨을 쉬기 위하여 물 위로 올라오곤 하는 놀이가 숨바꼭질로 바뀌었다.

☆ 유머 / 복수혈전  
장인 칠순잔치를 마치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심하게 말다툼했다. 서로 외면하고 가던 중에 차창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얼얼거리는 게 눈에 띄자 아내가 "당신 친척이잖아? 반갑지? 인사나 하시지?"라며 빙정했다.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개한테 소리쳤다. "어이, 처남! 어디 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침입자와 공존이 가능할까

기자수첩



이재훈 IT중소기업부/yes@

코로나19 뒷북행정에 상을 준다고요?

걸고 그러느냐는 핀잔에도 몇 마디 뒷북입니다. 첫 번째가 'EBS e학습터 등 온라인 교육' 사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모든 학생이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걱정 없이 EBS e학습터 등 주요 교육용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했다고 했는데, 당연한 조치에 대한 생색내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통신 서비스

가 몇 번이나 먹통이 돼서 제도 도입 초반 혼란을 빚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한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공적 마스크'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약국 등 판매처별 마스크 재고량 정보를 모바일 앱·웹으로 제공했다고 자찬했습니

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150여 개의 마스크 웹·앱 서비스 출시를 통한 마스크 판매 문의 및 대기줄 감소로 약국의 업무 부담이 줄고, 재고 판매완료 비율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마스크 구입 편의 개선'을 치켜세웠죠.

그런데 이미 오랜 기간 대기줄 서느라 진땀이 빠진, 이 때문에 아예 줄서기를 포기하고 '집콕'만 했던 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직도 마트와 우체국, 약국에서 몇 번이나 빨아 다시 쓴 헌 마스크를 의지한 채 긴 대기줄을 서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 울화통이 납니다.

뒷북행정을 한 것은 솔직히 인정했으면 합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은 격려해 드리고 싶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불통행정·뒷북행정'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서 '적극행정'이 중요할 수 있는데, 축포를 너무 빨리 터트리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선정해 칭찬도 하고, 나름 포상도 하는 시상식인 듯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진단키트·K바이오 지원 등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던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에 대해선 집짓 응원외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뭔가 목구멍에서 가시가 박힌 것처럼 '턱턱' 하는 게 있어서요. 뭐 이런 것까지 '딴지'를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Rows include 논설실, 자본시장1부, 산업부, 정치경제부, 자본시장2부, IT중소기업부, 사회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국제경제부, 부동산부, 뉴스랩부,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 50대의 변심(?)과 주류교체론

주류교체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1대 총선이 던진 핵심 화두 중 하나다. 정치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갔다는 게 요지다. '만년 비주류' 민주당이 주류로 부상한 반면 미래통합당이 비주류가 됐다는 것이다. 근거는 진보진영의 최근 선거 4연승이다. 신승을 거둔 2016년 총선이 신호탄이었다. 이어진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올해 4월 총선에서 압승했다.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큰 표차로 3연승을 거둔 것은 처음이다. 10년 전 통합당에 당했던 3연패의 수모를 고스란히 만회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와 2007년 대선(이명박 대통령 당선), 2008년 총선(299석 중 153석)에서 통합당이 대승을 거뒀던 것과 닮은꼴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지방에 이어 행정부, 의회 권력까지 야당에 넘겨졌던 민주당의 무기력한 행태를 통합당이 그대로 재현했다. 대통령 탄핵에 여당의 반성 없는 무기력한 행태가 겹쳐지면서 행정부와 지방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헌납했다.

정치는 돌고 도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3연승 의미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선방이 결정적이었고 통합당이 정권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은 맞다. 인물, 비전, 정책대안 등 3무의 길을 걷는 통합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사효과도 컸다. 코로나에 경제실정 등이 분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이게 전부 아니다. 본질은 정치판의 구조 변화다. 바로 유권자의 탈보수화로 요약되는 세대교체다. 세대교체로 3040은 물론 50대까지 진보색채가 짙어졌다. 3040(진보 지지) 대 5060(보수 지지)의 세대대결 구도는 3040 대 60의 구도로 바뀌었다.

### 데스크칼럼

####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다. 주류교체론은 이와 맥이 닿아 있다. 주류교체는 세대교체의 다른 표현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2년 이후 보수와 진보는 대선에선 힘의 균형을 이뤘다. 6차례 대선에서 3대 3으로 팽팽했다. 노태우 정권의 바통을 이은 김영삼 보수정권(1992년)에 이어 김대중(1997년), 노무현(2002년) 진보정권이 탄생했다. 그 뒤를 이은 건 이명박(2007년), 박근혜(2012년) 보수정권이였다. 2017년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섰다.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바뀌었다.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총선 양상은 조금 달랐다. 보수가 시종 강세였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건 21대를 제외하곤 152석을 얻은 17대 총선(2004년)뿐이었다. 14, 15, 18대는 100석에도 미치지 못했다. 14대(1992년)부터 19대(2012)까지 6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도 17대 총선이 유일했다. 변화가 시작된 건 4년 전 20대 총선이였다. 통합당이 압승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123대 122 한 석 차의 민주당 승리였다. 이를 계기로 선거구도가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그배경엔 세대교체가 자리한다. 중심엔 50대가 있다.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586세대'다. 현 정치권의 주축이다. 나이가 들면 보수화하는 '연령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50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경험을 공유한 세대로 진보성향이 짙다. 적어도 50대는 보수지지로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한국갤럽의 2012년 유권자 조사에서 "나는 보수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진보보다 많은 나이는 47세였다. 40대 후반도 보수성향이 강했다. 갤럽의 8년 후 같은 조사에선 확 달라졌다. 본인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나이는 57세(1963년생)였다. 8년새 50대 초중반까지 진보색깔이 짙어졌다. 21대 총선 방송사 출구조사에 나타난 50대 투표성향은 민주당 지지(49.1%)가 통합당 지지(41.9%)보다 많았다. 지난 8년 동안 진보성향이 강한 40대가 50대로 옮겨간 세대교체 효과다.

50대의 진보색채가 짙어진 게 사실이지만 진보로 확 기운 3040과는 다르다. 승패의 키를 쥔 '스윙보터'라고 보는 게 옳다. 진보성향이 강하지만 합리성과 공정성, 성과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민주화 세대다. 무조건 이념을 내세우기보다는 실리를 따진다. 진보와 보수 모두 50대 공략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2년 뒤 대선이 있다. 50대의 선택이 중요하다. 기준은 합리성 공정성에 기초한 성과다.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는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탕을 할 수 없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추락하는 경제를 살려내는 게 당면 과제다. 힘의 논리로 일방통행해선 50대를 설득할 수 없다. 협치를 통한 정치복원이 첫 시험대다. 통합당은 필통 보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혁보수로 거듭나는 게 급선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비판을 토대로 정책경쟁을 벌이는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출구가 생긴다. 새로운 인물은 그 핵심이다. 주류교체는 여야에 새로운 숙제를 안겼다. leejc@

### 사설

## 미·중 충돌 격화, 어떻게 균형 지킬 수 있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의 정면 충돌에 불을 붙였다. 미국은 경제와 외교 전반에 걸쳐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원색적인 언사로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악랄적 경제 라미', "도라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공격했다. 중국은 트럼프를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미 백악관은 최근 공개한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은 생명과 자유 등에 대한 미국의 기본 신념을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과 봉쇄 등 '경쟁적 접근'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대중 유화정책의 폐기와 함께 신냉전(新冷戰)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활용된 해외 기업의 반도제를 중국 화웨이에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경제변영 네트워크'(EPN)라는 반중(反中) 경제블록의 구상을 내놓았다. 중국을 배제하고 친미(親美) 국가들을 연결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참여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의 외교와 안보, 경제에 중첩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자 2위 수출대상국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

출 비중은 작년 기준 25.1%, 미국은 13.5%다. 두 나라의 충돌은 우리 안 미경중(安美經中) 의존구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은 EPN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우리로서는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 역학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우리 외교의 '전략적 모호성'은 설 자리가 없다. 사실 안보와 경제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할 가치인지는 굳이 따져볼 것도 없다. 그럼에도 다른 쪽의 보복은 불가피하다.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무자비한 경제보복을 당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국의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가 가장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지도 별로 없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균형외교를 말하지만 빈약한 외교력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전략의 근본적인 재편이 요구된다. 최우선 과제는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의존구조를 탈피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외부 충격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말은 쉬운데 갈 길은 멀고, 뽀족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정말 위기다.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 해님 달님의 호랑이 동아줄이 아니길

다 지출이 증가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축됐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세종의 도담동 음식 거리도 올해 2-3월 점심·저녁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없었다.

다행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부터 지급돼 소비가 꿈틀거리는 듯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도 소비 진작을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활동이 5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하반기 대부분 정상화하고, 해외의 경제활동도 하반기에 완만하게 회복된다면 올해에는 플러스 성장(0.2%)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성장 경로에 복귀도 예상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하면 국내에선 5월부터, 해외에선 3분기부터 경제활동이 가시적으로 회복되고,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상용화한다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서비스 소비 위축에 제한돼 올해 성

장률이 1.1%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둔화와 배신·치료제 상용을 전제 조건으로 달긴 했지만 말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3차 추경을 통해 지금의 위기 탈출에 힘을 보탬 방침이다.

1분기엔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경제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분기엔 감염자 감소 등으로 경제에도 집중할 수 있고 다양한 정책 등이 나오고 있다.

부디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등이 코로나19로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를 기점으로 줄 동아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해님 달님'의 호랑이가 잡았던 낚은 동아줄이 아니길 말이다. riby@

## 미리 보는 한 주 올해 성장을 전망, KDI 이어 韓銀은

이번 주에는 월말에 몰리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경제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우선 한은은 26일(화) 5월 소비자동향조사(CSI)와 27일(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앞서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나타냈다. 1월의 104.2 이후 3개월 연속 수직 낙하한 것이다. 또 4월 전(全)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내린 51이었다. 이 또한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29일(금)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월 조사에서는 서비스업 생산이 4.4% 급감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은과 통계청의 경제지표는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본격화한 3월 이후 3개월째의 경기 성적표인 셈이다. 정부가 4월 이후 확진자 증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기존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긴

급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경기 충격이 일부 완화되었는지 관심이 있다.

28일(목)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금통위는 앞서 3월 16일 임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나 전격 인하하고, 4월 9일 정례회에서는 동결한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인화와 동결 전망이 팽팽히 맞서는데, 인하 전망이 다소 우세한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2월 2.3%에서 2.1%로 한 차례 낮췄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진 만큼 더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제 올해 성장률은 -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해 0%대 초반의 + 성장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올해 상반기 -0.2%와 하반기 0.5%를 거쳐 연간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차차차

Liiv  
리브모바일

GLOBAL ONE MARKET

Liiv  
Mate

‘매물대수1위, 중고차 거래 플랫폼’  
편리성과 안심거래로  
중고차 거래를 신뢰로 바꾸다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  
혁신적인 통신 혜택으로  
생활을 바꾸다

‘해외주식 원화거래 서비스’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주식처럼 쉽게 바꾸다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KB 통합 포인트 플랫폼’  
포인트 적립부터 결제까지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바꾸다

‘내 일상에 꼭 필요한 암보험’  
당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보험의 상식을 바꾸다

# 누리보세요! KB가 만들어가는 쉽고 편리한 세상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브모바일]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863호(2020.05.14) 광고물 유효기한 2020.12.31 [KB차차차] 2020년 4월 글로벌리서치 <중고차거래플랫폼 리서치> 기준 [리브메이트]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512-01466-ADP호(2020.5.12 기준) [글로벌원마켓]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2239호(2020년5월13일)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가능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 국가 :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10/15/20/30년 갱신이며, 최대 갱신 종료 나이는 100세입니다(담보별 상이). 또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변동에 의해 갱신 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 최초(갱신 전) 계약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전 자세한 상품 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사항 및 지급제한사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필 제 30632호(2020.05.18)

KB 금융그룹